[UCI]I804:24011-200000231793

# 연암 박지원 소설에 대한 계층인식의 틀

The Perceptional Framwork of Hierarchical Order
in the Novels by Yeonam Park, Ji-won

2007年 2月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漢文敎育專攻

金 貞 愛

# 연암 박지원 소설에 대한 계층인식의 틀

指導敎授 權 純 烈

이 論文을 敎育學碩士(漢文敎育)學位 請求論文으로 提出합니다.

2006年 10月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漢文敎育專攻

金 貞 愛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00373503 2007-04-09

金貞愛의 敎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합니다.

審査委員長　朝鮮大學校 敎授 金成基 印

審査委員　　朝鮮大學校 敎授 李相夏 印

審査委員　　朝鮮大學校 敎授 崔純烈 印

2006年　12月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 目　　次

ABSTRACT ····· i

Ⅰ. 서　론 ····· 1

1. 연구의 목적 ·····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

Ⅱ. 계층인식과 대응양상 ····· 8

1. 피지배층 유형에 따른 인식의 틀 ····· 9

1) 예덕선생전의 엄행수 ····· 10

2) 광문자전의 광문 ····· 14

3) 양반전의 富人 ····· 16

2. 지배계층의 유형에 따른 인식의 틀 ····· 20

1) 양반전의 양반 ····· 21

2) 허생전의 허생 ····· 26

3) 호질의 북곽선생 ····· 34

4) 예덕선생전의 선귤자와 자목 ····· 39

Ⅲ. 연암의 현실 사유관 ····· 43

Ⅳ. 결　론 ····· 51

참 고 문 헌 ····· 55

# The Perceptional Framwork of Hierarchical Order in the Novels by Yeonam Park, Ji-won

kim Jung-Ae
Adviser : Kwon Soon-yoel Litt.D.
Major : Sino-Korean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aims at reviewing Yeonam's works for historical social realities which Yeonam with learning and virtue and talent couldn't but describe using satire and comedy among many descriptive techniques, unlike the existing researches on his works which imply a fixed idea that his works are typical of satirical stories.

Yeonam's works in the late Joseon period present as crucial issues conflict in the social status system and inequality of sexes as the traditional value was heavily shaken along with many new historical phenomena including formation of cities and changes in agricultural villages due to economic growth based on capital, the fall of the aristocratic class (yangbans), and the rise of the new rich peasantry among merchants, craftsmen, and farmers including the middle class and low-level officials, and describe efforts to deal with the issues, which are examined as follows.

First, Chapter 1 as an introduction outlines the writer's historical and

social background based on the existing researches and sets and raises questions in a comprehensive way.

Second, Chapter 2 as the main discourse makes considerations in two paragraphs. Considerations are made for awareness of the temporal reality in the ruling and ruled classes through each story.

Third, Chapter 3 provides an opportunity to recognize anew the fact that Yeonam's works have given infinite literal inspiration to us for more than two century and determines its standing in the Korean literary history and true meanings and values.

Fourth, Chapter 4 as a conclusion summarizes the discussions in this study and looks at historical and social realities at that time through Yeonam's own life and works.

His works provides criticisms and solutions to absurd social realities. He also emphasizes that social decay originated in the ruling class and hopes that they would return to statesmen that they should be.

Both *Majangjeon* and *Yedeokseonsaengjeon* observe sincere lives of people at the then lowest class, discover true humanity among them, and paradoxically criticize negative and hypocritical lives of the ruling class in the indirect way.

As a work with a strong characteristic of social enlightenment, *Yedeokseonsaengjeon* addresses and criticizes yangbans' hypocritical and corrupt lives through a sincere life of a citizen, Eom Haeng-su. In particular, it reflects the people's consciousness, importance of sale in lots, and interest in agriculture in suburban areas as his viewpoint is converted

into that of a realist in pursuit of practical science.

*Gwangmunjajeon* criticizes a large group of people who covet honor and slander and are jealous toward others but never reflect their negative behavior through faithful behaviors and living within his means of Gwangmun on a low social position.

*Yangbanjeon* tries to charge yangbans who look like a legendary hermit outwardly with falsehood, satirize their inability and idleness, and restore their slackened morality. However, the work also contains another suggestion that those challenging yangbans' authority should refrain from behaviors to destruct social order and be encouraged to live a contented life with their forgotten duty.

As a work with his idea of practical science concentrated after he had been Yeongyeong, *Heosaengjeon* demands moral awakening in the ruling class looking away from the real and people but putting party interests first and suggests a desirable image for society. First, he reveals and criticizes that cornering and hoarding as a social pathological phenomenon is economic equality caused by chronic inconsistency of the then distribution structure. Second, the desire for an ideal society aims at making strong criticism against the then irrational society by realizing real impossibility in an inhabited island. Finally, he indicates recklessness of the impossible theory of the subjugation of the northern areas by obstinate statesmen and criticizes falsehood and incompetence of the ruling class.

*Hogil* shows the essence of satire which characterizes Yeonam's works, scolds Confucian scholars filled with hypocrisy and affectation, and

furthermore urges them to make self-awareness and reflection of negative human nature found in society.

It is noteworthy that his works try to change awareness according to historical and social realities and the resultant general trend of social status differentiation in a literal way and that the changes in awareness developed into awareness of human nature. Ultimately, Yeonam's works are paradox of inconsistency of the then real society and social purification in pursuit of ideal Confucian society. His works are mental fruits of a writer, and are remarkably valuable as literature pursuing the spirit of practicality and reflecting a will to aspire after modern society based on realism of practical science. Literary works have widely been used as a means of suggesting a writer's consciousness for a long time. That is because there is no other thing than writer's works that can best reflect his or her awareness of the real in a concrete way. We have invested a large amount of time and efforts in finding out what Yeonam truly demanded from society through many existing books and theses. Nevertheless, we are absorbed in researches to fill the lack. Respect should be paid to Yeonam in that his view of society evoked not a few echoes in the world and provided opportunities to change conception continuously rather than being content with the real passively. But the existing assessment and evaluation is recognized anew and reevaluated over time and Yeonam's works cannot but go through such a trend. Recently, this leads to changes in the existing evaluation of his works. A wider view and active attitude should be taken to review his works.

# Ⅰ. 서 론

## 1. 연구의 목적

조선조 18세기 후반은 封建社會 말기, 자본주의 萌芽 형성의 시기로 기존체제의 동요가 澎湃하였다. 16세기 말 일찍이 체험해 보지 않았던 壬辰·丙子 兩國亂을 연달아 겪은 후 나라 경제를 파산시키고도 남았다. 재정의 고갈은 국란은 극복하고, 민생의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역부족이었음을 실감하게 되었다. 그러나 英·正 시대에 이르러 일시적이나마 안정을 되찾기도 하였다. 이는 국가 전반에 걸친 내부적인 요소들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지 못한 결과, 각 방면으로 불안과 갈등을 초래하게 되었다.

燕巖 朴趾源(1737~1805)은 18세기를 살다간 인물이다. 그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는데, 불우한 유년시절과 官路에서 마저도 불운하였다. 여기에는 무능과 위선을 일삼는 위정자들에게 퍼붓는 독설과 매도가 그들의 질시와 배척의 대상이 된 점도 있지만, 혐오에 가까운 염증을 느끼면서도 그런 신분적 위치를 과감히 떨쳐 버릴 수 없는 애매모호한 중간적 위치에 혼란스러워 하는 연암을 엿볼 수 있다. 이런 환경적인 영향 속에서 자신이 목격하고 있는 현실의 부조리와 불합리에 직접 맞설 수 없음에 연암의 고민은 시작되었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는 실학파의 중심인물로서 뿐만 아니라, 문학 분야에서 주목받는 작가로 인식되어 왔다. 연암의 많은 글 중에서 『放璚閣外傳』에 「馬駔傳」·「穢德先生傳」·「閔翁傳」·「廣文者傳」·「兩班傳」·「金神仙傳」·「虞裳傳」·「易學大盜傳」·「鳳山學者傳」과 『煙湘閣選本』에 「烈女咸陽朴氏傳」, 『熱河日記』에 「虎叱」·「許生傳」 등의 소설은 현재까지 많은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작가 자신이 활동했던 당시만 해도 그의 평가는 사뭇 달랐다.

연암은 간접적이나마 자신의 문학작품을 통해 자기 위치를 자각하고 자신의 역

할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였다고 생각된다. 즉 한계에 부딪쳐 자기의 뜻을 표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적·정치적 현실비판과 불평불만은 필연적 결과였다. 이런 태생적 결과물로 나타난 그의 작품들은 기존의 문학작품들과 창작 동기나 형성과정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 우선 민생은 뒷전이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갈등과 반목으로 점철된 집권층에 대해 글로써 강한 일침을 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역사적·시대적 배경을 근거로 한 그의 작품들이 오늘날 우리 문학사와 사상사에 확고히 자리 잡게 되고, 古典의 지위를 누리게 된 것은 불과 수십 년 내의 일이다.

연암의 문집인 『燕巖集』은 그의 사후 거의 백년이 지난 20세기 初頭에 들어서야 공식적으로 출간 되었으며, 그의 문학과 사상에 관한 연구 역시 일제 치하인 1930년에 朝鮮學運動의 일환으로 시작되었고, 실학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난 60·70년대에 이르러 비로소 본격화되었다.[1] 이 시기까지 영·정시대의 사회적 배경과 실학사상을 중심으로 하여 작가나 작품의 근대성 및 풍자성을 고찰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950년대 후반의 연암문학에 대한 본격적인 논문이 나타나기 전 1940년대 후반과 1950년대 후반 전반기는 原典의 번역과 校註가 주로 나타났으며, 1965년에 李家源은 그간 발표한 논문을 묶어 『연암소설연구』[2]를 출간하였다.[3]

1960년대까지의 박지원문학에 대하여는 대부분 한문단편을 중심으로 작가의 실학사상과 영조시대의 사회적 배경에 근거하여 작가나 작품의 근대성, 풍자성을 고찰하는 것이 그 중심과제였다고 할 수 있다. 작가론과 작품론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였고, 작품대상도 『許生傳』·『虎叱』·『兩班傳』이 중요 관심사였으며, 1970년대에 들어서서 박지원의 문학에 대한 연구는 전반기에 이루어 놓은 연구성과를 바타응로 새로운 경향을 띠기 시작했다. 먼저 작가론과 작품론이 분리되지 않던 과거와는 달리 개별 작품론이 우세하였고, 또 작가론과 작품론의 경우도 실학사상, 풍자성이 고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문학관, 비교문학적 고찰, 그리고 사회경제사적 고찰

1) 김명호, 『朴趾源 文學硏究』,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硏究院, 2001, p.181.
2) 李家源, 『燕巖小說硏究』, 乙酉文化社, 1965.
3) 朴箕錫, 『朴趾源의 文學硏究』, 三知院, 1984, pp.14~15.

과 작품의 형성에 대해서 점차 관심을 보였다. 특히 한문단편 외에 그의 詩文과 『熱河日記』에 대한 논의가 일기 시작하였다.[4] 70·80년대 거치면서 기존에 비해 각각의 작품으로 세분화되면서 『열하일기』와 詩로 확대 실학사상 쪽에 관심이 줄어드는 양상이 되었다. 그 이후로 지금껏 다양한 접근방식을 통해 연구되어지고 있다.

작금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암 박지원하면 북학파의 대표적인 실학자이며, 그의 소설은 실학사상에 기반을 둔 풍자소설로 局限되어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구체적으로 작품의 대상 역시 앞서 기술한 「兩班傳」·「許生傳」과 더불어 「虎叱」이 主를 이루고 있다. 특히 이 세 소설은 예나 지금이나 세인들에게 두루 膾炙되고 있으며, 연암의 소설 중에서도 白眉임에 틀림없다. 이는 하나의 형식화된 공식처럼 되어 달리 이견이 없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에 논의에 대해온 것을 反하려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연암소설에 대한 선학들이 연구한 방대한 역사적 자료와 학문적 경험을 바탕으로 빈약하게 다루어진 감이 있는 문제점들을 좀 더 체계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암의 소설들은 우리가 周知하고 있다시피 현실에 근간을 두고 있음을 想起할 때, 여기서 말하는 현실을 당시의 역사적·사회적인 부분에서 찾고자 한다. 즉 실사구시에 입각한 위학의 배격·당쟁의 비판·상업경제의 강조 등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자기 시대의 모순을 바로잡고자 하는데 주목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없다. 연암의 현존하는 소설들은 하나같이 당시의 급변하는 사회현실과 변화에 민감하고도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실재 역사적·사회적 현실을 바탕으로, 각각의 소설을 분석해 당시 실생활에 직면한 문제를 언급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작가의 의지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체계적이며 구체적이고 분석적이 필요하다.

한편 작품에 나타난 皮相的인 모습, 작가 연암이 글을 써야만 했던 근본적인 이유 역시 당시 사회의 부조리한 현실을 폭로하고자 함이 급선무였으리라 추론해본

4) 박기석, 앞의 책, pp.16~17.

다. 이것은 외적 원인의 결과이다. 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작가 자신이 바라보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인물군상들이 사회적 환경에서 비롯된 현실의 내적 충돌을 살펴보아야 한다. 或者는 그의 작품이 시대를 반영하는 가운데, 신분계급의 타파와 맹목적인 실학사상의 主唱 등 기존 봉건질서의 일방적 배척에 앞장 선 선구자적 입장에서 보는 시각이 다분히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연암의 기본이 되는 학문의 뿌리를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그 성장과정 자신의 처한 환경에 주의를 기울이면, 의외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자명하다. 연암이 그토록 강조해 마지않던 실학정신 속에도 봉건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음을 작품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런 취지에서의 약간의 이견을 보완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연암은 자신이 처한 현실을 회피하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하기 보다는 돌출된 갈등과 모순을 수용하고 비판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아울러 당시 자신의 安逸에 급급하던 從來 위정자들이라 하는 무리들과는 차원이 다른 인물로써, 그의 소설 역시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야 함이 당연하다. 그는 당시의 사회현실과 사회변화에 대해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직면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했으며, 그런 시도가 자신의 작품을 통해 반영되고 구현되고 있다.

연암의 소설관을 보면, 法古創新을 기본 관점으로 현실에 기반을 둔 '眞'문학을 창조하는 한편 '文以寫意'나 '以文爲戱'의 특성을 엿볼 수 있다. 즉 당대의 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소성의 관점은 오늘날 서구의 'novel'보다는 載道論의 관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면은 그의 「自序」에서도 엿볼 수 있다.

> 우도가 오륜의 끝에 있음은 그 성글거나 비루하여서가 아니다. 마치 오행에서 토가 사시에 붙어 다니는 것과 같다. 부자유친·군신유의·부부유별·장유유서는 신의가 없다면

어떻게 행하겠는가? 상도가 만약 정상적이지 못하다면 우도는 이에 그것을 바로잡아 주니 뒤에 거하여 이에 인륜을 통섭하는 까닭이다. 세 미치광이가 서로 벗하여 세상을 피하여 떠돌아다니며, 그 참소하고 아첨하는 이들을 논하는 것은 마치 수염과 눈썹(얼굴)만 드러낸 듯하니, 이에 「마장전」을 지었다.[5]

이 부분은 「마장전」을 지은 의도를 나타낸 글이다. 연암은 당시의 시대를 '신의가 없고', '상도가 어긋난 시대'로 인식했기 때문에 소설을 창작했다고 하였다. 이로 본다면, 연암의 소설은 단순히 현대적 의미의 소설이 아니라, 도를 실어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인식하도록 하는 글이었을 뿐이다[6]. 즉, 「馬駔傳」, 「閔翁傳」, 「金神仙傳」은 작자의 주관이 양직으로 표현된 주관문학이며, 거기에 나오는 1인칭은 바로 작가 자신을 지칭하는 것이기에 소설이 될 수 없고, 「穢德先生傳」, 「廣文者傳」, 「烈女咸陽朴氏傳」은 시정에서 유행하는 이야기를 작자 주관에 따라 기술한 전기적 수필에 불과하며, 「虞裳傳」은 역관 이언진의 시화를 중심한 실화이므로 이를 소설로 볼 수 없다. 따라서 「兩班傳」, 「虎叱」, 「許生傳」 세 편만이 소설로 인정될 뿐이다.[7]

도를 싣는 틀로서의 연암 소설을 이해한다면, 연암의 현실 사유관을 분석해 낼 수 있다. 유학은 '儒者의 學'이다. 유학은 곧 경세학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 즉 유학의 본래 목적은 修己治人은 곧 內聖外王을 추구한다. 율곡은 이 儒者를 眞儒라고 하는데, 眞儒란 정치일선에 섰을 때는 一時에 도를 행하여 만민이 안락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며, 물러나서는 만세에 가르침을 베풀어 학자들로 하여금 대오각성하게 하는 자라고 하였다. 따라서 만세의 사표가 되기 위해서는 修己를 통한 덕성함양에 힘써야 하고, 治人을 위해서는 經濟에 뜻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8] 연암은

---

5) 朴趾源, 「自序」, 『燕巖集』. 友居倫季 匪厥疎卑 如土於行 寄王四時 親義別叙 非信奚爲 常若不常 友酒正之 所以居後 酒殿統斯 三狂相友 遯世流離 論厥讒諂 若見鬚眉 於是述馬駔.

6)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의 소설이라는 인식의 틀로 삼고자 한다.

7) 민병수, 「한국소설발달사」, 『한국문화사대계Ⅴ』,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1967. 소재영 재인용, p.130.

8) 李珥, 『栗谷先生全書』 卷之十五 雜著二 東湖問答, 客曰 吾東方 亦有以王道治世者乎 主人曰 文獻不足 無可攷者 但想箕子之君于吾東也 井田之制 八條之敎 必粹然一出於王道矣 自

부정할 수 없는 유자일 뿐이다. 그러므로 그의 현실 사유관을 표현하는 수단이 바로 소설이었을 것이고, 그 소설에는 현실에 대한 대응인식을 설파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本稿는 연암 박지원의 작품들을 역사적·사회적인 현실에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각각의 소설을 통해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에 표출하고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피고. 또한 어느 곳에도 속할 수 없었던 자신의 위치를 자각하며,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면서 오는 과정에서 오는 내적 갈등 역시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Ⅰ장은 서론 부분으로 기존의 연구에 힘입어 작자의 역사적·사회적 배경을 간략하게 숙지하고, 포괄적으로 연구방향을 설정하고 문제제기를 한다.

둘째, Ⅱ장은 본론 부분으로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을 통해 연암이 당시의 지배층과 피지배층을 어떻게 인식하고 시대적 모순을 극복하고자 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현존하는 연암의 소설을 李家源의 『燕巖小說硏究』의 『방경각외전』에 수록된 『馬駔傳』·『穢德先生傳』·『閔翁傳』·『廣文者傳』·『虞裳傳』·『兩班傳』을 중심으로 한 初期 九傳을 제1기, 『열하일기』에 삽입된 <闕內程史>속 「虎叱」과 〈玉匣夜話〉 중의 許生을 제2기, 安義縣監 在職 時에 지은 「烈女咸陽朴氏傳」을 제3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에 Ⅱ은 예덕선생전의 엄행수, 광문자전의 광문, 양반전의 富人등의 피지배층 인물과 양반전의 양반, 허생전의 허생, 호질의 북곽선생, 예덕선생전의 선귤자와 자목 등의 지배층 인물을 중심으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작가가 속해 있는 지배층의 모습과 몸소 느끼고 접한 피지배계층의 생활상을 반영하면서 오는 시대적 현실을 살펴, 소위 양반이라 일컫는 지배계층의 이중적 본질을 비판·폭로하고

---

是厥後 三國鼎峙 高麗統一 考其事業 則專以智力相勝 夫孰知道學之爲可尙耶 不特邦君爲然也 下焉者 亦不聞眞知實踐 以紹先正之傳 註誤于竺學 怵迫于禍福 滔滔千載 莫或拔萃 麗末鄭夢周稍有儒者氣象 亦未能成就其迹 其行事 不過爲忠臣而已 客艴然曰 子以爲吾東數千載之閒 無一眞儒 何言之過高耶 主人笑曰 子問我 我不敢不以正對 豈其樂爲過高之論耶 夫所謂眞儒者 進則行道於一時 使斯民有熙皞之樂 退則垂敎於萬世 使學者得大寐之醒 進而無道可行 退而無敎可垂 則雖謂之眞儒 吾不信也 箕子變夷之後 更無善治之可法 則是進無行道者矣 東人所著之書 未見深明乎義理 則是退無垂敎者矣 吾豈妄言以誣百代之人耶.(右論東方道學不行)

그로 인해 야기된 사회적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극복하고자 하였는지 작자의 의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셋째, Ⅲ장은 당시의 시대상을 소설을 통하여 추구하고자 했던 작가의 현실인식을 되짚어 본다. 아울러 2세기가 지나도록 여전히 우리들에게 무한한 문학적 영감을 던져주는 작품임을 재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그 의미와 가치를 살핀다.

넷째, Ⅳ장은 결론부분으로 본고에서 논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정리하여, 자신의 삶과 작품 속 계층 간 인물들을 통하여 연암의 당시 역사적·사회적 현실인식을 살펴본다.

# Ⅱ. 계층인식과 대응양상

연암이 살았던 사회는 영원불변할 것만 같았던 봉건체제가 붕괴되어가는 찰나이면서, 새로운 文明이 움트려하는 시기였다. 이러한 역사적·사회적 혼란기를 극복하기 위한 작자의 현실인식은 남달랐다. 이에 시대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작품의 미적가치 보다는 당시의 현실에 입각한 접근을 하고자 한다. 이런 접근은 작가 자신이 시대적으로 당면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했는지 확인하는데 필수적이라 하겠다.

연암 소설의 인물 유형을 크게 보수적 인간형과 진취적 인간형으로 나누고 있다. 그리고 「兩班傳」의 양반과 「閔翁傳」의 민옹, 그리고 「金神仙傳」의 김홍기를 몰락사대부로 보고, 이들 인물을 현실인식의 차이에 따라 각각 현실굴종형, 현실비판형, 현실도피형으로 세분화하고 있다[9] 또, 강봉근은 연암소설의 인물을 부정적인, 긍정적 인물, 소외당한 인물로 유형화하여 「閔翁傳」의 민옹과 「金神仙傳」의 김홍기를 소외당한인물로 보고 있다.[10] 박태상은 연암소설의 인물유형을 ① 평민계층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작품 「馬駔傳」, 「穢德先生傳」, 「廣文者傳」 ② 몰락양반이나 은둔자, 중인·서얼 계층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작품 「金神仙傳」, 「閔翁傳」, 「虞裳傳」 ③ 양반과 평민이나 동물, 또 다른 양반 등이 대립되는 위치에서 행동하는 작품 「兩班傳」, 「虎叱」, 「許生傳」 ④ 중인계층의 여성이 주인공인 작품 「烈女咸陽朴氏傳」으로 나누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인물유형은 명확한 기준 없이 인물을 계급 삶의 방식, 작품구조 등의 복합적 요소로 분류하고 있고, 또 「兩班傳」의 정선양반은 ②의 항목에도 포함될 수 있는 인물유형이라고 본다.[11]

이러한 분류에서 보면 연암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을 크게 두 가지로 유형화

9) 朴箕錫, 『朴趾源文學硏究』, 三知院, 1984.
10) 강봉근, 「연암소설의인물연구」, 전북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85.
11) 설성경·박태상, 『고소설의 구조와 의미』, 새문사, 1986.

할 수 있다. 하나는 「예덕선생전」의 엄행수, 「광문자전」의 광문, 「양반전」의 富人 등의 인물로 피지배계층을 들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양반전」의 양반, 「허생전」의 허생, 「호질」의 북곽선생, 「예덕선생전」의 선귤자와 자목 등과 같은 인물로 지배계층을 들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연암의 소설에서 나타난 인물의 유형은 지배계층과 피지배 계층으로 나뉜 당대의 삶의 세계를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다.

## 1. 피지배층 유형에 따른 인식의 틀

연암은 명문가 자제로 태어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유년시절은 자연 자아계층에 대한 비판과 현실 비판적 자세로 옮겨졌다. 막막한 자신의 현실은 정신적 갈등과 좌절을 가져왔고, 이를 극복하고자 문장수업에 邁進하면서 동병상련의 부류와 교류하면서 세상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던 때이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모순으로 가득 찬 현실을 객관적으로 직시할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되고, 그 시선은 無能한 양반층에서 진실한 삶을 영위해가고 있는 서민층[12]으로 가게 된 것이 지극히 자연스런 현상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소설들은 조선시대의 특정한 시대환경 속에서 특이한 개인의 삶을 투영하여 당대의 사회현실에 대해 가감 없는 비판을 쏟아내었다. 특히 「방경각외전」에 수록된 소설의 궁극적 주제와도 부합하는 友道의 타락을 주목하여 당시의 양반사회를 비판하고, 이런 양반들에게 실망과 환멸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현실적 상황에 상실된 인간적·윤리적 미덕을 일방적인 차별과 멸시의 대상이었던 서민의 삶과 생활에서 발견하여 자신의 소설 속에 반영되고 있다. 즉, 조선시대 주목받지 못했던 서민의 발견이며, 18세기 서울을 중심한 일각에서 그 사회적 존재로 두각을 나타낸 서민적 人間群像을 재인식하게 된 계기가 된 점이 두드러진다.

---

12) 본고에서 피지배계층, 즉 서민을 중심으로 각각의 계층으로, 집권사대부 계층과 몰락양반계층을 제외한 부류를 가리키는 것으로 한다.

이제 당시 역사적·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피지배계층을 대표하는 주인공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과 작자의 현실이 어떻게 반영되었으며 개선하고자 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연암 자신의 현실에서 신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자신의 위치를 소설 속 주인공의 묘사를 통해 본다.

### 1) 「예덕선생전」의 엄행수

「穢德先生傳」은 불의로 축재하여 호의호식하는 자들의 내면적 불결성을 비판한 작품이다. 또한 그의 營農意識과 조선시대 지배질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함축되어 있다.[13] 연암은 이 소설의 著作동기에 대해 「自序」에서 "선비가 구복에 묶이면 모든 행실은 굶주림에 빠져 진수성찬은 탐욕을 경계하지 못한다. 엄씨가 스스로 똥으로 먹고사니, 행적은 더러우나 구복은 깨끗하여 이에 「예덕선생전」을 지었다.[14]" 고 하였다. 따라서 당시 양반의 무위도식하며 생활전선에 참여하지 않고 자신의 탐욕에 급급해 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사람들이 먹기 위해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게 되나, 嚴行首는 똥을 져 나르는 것으로 생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직업을 천히 여긴다. 작자는 여기서 양반이 이익을 추구하는 데는 상응하는 건실한 노동이 필요하며, 그러한 삶을 묵묵히 해쳐나가고 있는 賤人役夫 엄행수를 통해 인간의 참된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자 한다.

소설에서의 엄행수가 하는 일은 糞을 수거하여 서울 근교에서 채소재배를 하는데 있어서 분을 수거하고 나르는 것이다. 연암은 엄행수의 생업을 천시하는 양반들에게 그 진정한 가치를 상기시키고 바람직한 삶의 의미를 제시한다.

대저 엄행수는 똥을 져 나르는 일을 하여서 밥을 먹고사니 지극히 불결하다 하겠으나

---

13) 朴箕錫, 「燕巖의 初期 九傳에 대한 一考, -穢德先生傳을 中心으로-」, 啓明大學校出版社, 1967.

14) 朴趾源, 「自序」, 앞의 책. 士累口腹 百行餒缺 鼎食鼎烹 不誠饕餮 嚴自食糞 迹穢口潔 於是述穢德先生.

그 먹을 것을 장만하는 방법은 지극히 향기로운 것이다.·····(중략)····· 내가 먹고 입는 데서 견디기 어려운 처지에 다다르면 항상 나만도 못한 처지의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엄행수의 경지에 이른다면 견디지 못할 것이 없겠지.[15]

엄행수의 직업은 비록 비천하지만, 그의 인격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높으니, 겉으로 고매한 척하지만 무위도식으로 삶을 일관하는 양반들과 비교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래서 가장 미천한 일을 하는 엄행수의 직업에 경의를 표하고 그런 생업을 하는 그의 인간성을 최고의 경지로 기술하였다.

여기의 두 계층 간의 대립적 설정을 통하여 진실한 삶이란 무엇인가에 하는 고민하게 한다. 또한 자서에서 밝힌 本意가 이곳에 상세하게 기술되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세인들의 원성에 아랑곳하지 않고 '선생' 이란 존칭까지 쓰면서 예우했던 본심이 여기에 있었다.

도에 힘쓰지 않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질적 부에 집착하는 자신의 부류를 보다가 본분을 지키고 영농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묵묵히 개척해 나가는 서민들의 모습이 신선하게 다가 왔을 것이다. 이에 그의 창작 의도는 물질적 망상과 나태함에 허덕이며 양반을 비판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오히려 성실한 한 서민을 통해 조선후기의 모순을 지적하고 해결하고 하는 의지 표출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이 「예덕선생전」에 농업을 경제 기반으로 삶았던 기본 질서가 무너지면서 황폐해진 농업 전반의 대해 부분적이나마 현실 묘사가 사실적으로 나타나 있다는 것이다.

새우젓을 먹을 때에는 달걀을 생각나고, 굵은 갈옷을 입으면 가는 모시를 부러워하는 법일세. 천하가 이래서 어려운 법이니, 농민이 땅을 빼앗기면 논밭이 황폐해지기 마련이지.

---

15) 「연암집」 권8 「예덕선생전」. 夫嚴行首負糞擔溷以自食 可謂至不潔矣 然而其所以取食者至馨香 ·····(中略)····· 故吾於口體之養 有至不堪者 未嘗不思其不如我者 至於嚴行首無不堪矣.

陳勝·吳廣 항적의 무리가 그 해 농사일이나 하는 데만 만족하고 말 사람들이었는가? 16)

이 작품이 지어진 것은 18세기 중반기 이전이다. 이때는 이미 경제적 붕괴가 되어, 이른바 막강한 자본으로 등장한 부농들로 인해 자작농이나 소작농들은 토지로부터 소외되기 시작했다. 토지를 근간으로 한 농민들은 농업 노동자나, 유랑민으로 전락하게 되었고, 그들의 생계를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한편에서는 生存의 문제에 직면하여 전전긍긍하는 농민이 존재하는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선 부를 바탕으로 예전과 다른 조직적이고 거대해진 상업적 농업형태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 왕십리 배추, 살곶이다리의 무, 石郊의 가지·오이·수박·호박, 연희궁의 고추·마늘·부추·파, 염교 청파의 물미나리, 이태인의 토란 따위를 심는 밭들은 그 중 上의 上을 골라 쓰되, 그들이 모두 엄 씨의 똥을 써서 기름지고 살지고 평평하고 풍요로워, 해마다 육천 냥이나 되는 돈을 번다는 거야.17)

이곳은 젊은 시절의 작가가 이미 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은 가치와 효율성을 십분 발휘할 수 있음을 알게 하는 대목이다. 영농인식이 잘 드러나 있는 문장으로, 조선후기에 이르러 전반적인 농업환경의 변화로 생성된 부농층의 출현과 농촌사회의 분화로 개편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유통경제가 발달하면서 교역이 왕성하게 이루어졌고, 이는 상업 발달을 더욱 촉진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연암은 농업에 주의를 기울인 것은 서민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한 최선책이며, 아울러 파탄 난 국가경제를 되살리는데 양반의 도리라고 보았다. 후에 짓게 되는 그의 농업서적 「과농소초」에서 역시 '農·工·賈의 失業은 선비에게 배움이 없는 허

---

16) 上揭書, 食蝦醢 思鷄子 衣葛羨衣紵 天下從此大亂 黔首地奮 田畝荒矣 陳勝, 吳廣, 項籍之徒 其志豈安於鋤耰者耶.

17) 上揭書, 石郊茄瓠水瓠胡瓠 延禧宮苦椒蒜韭葱薤 靑坡水芹 利泰仁土卵 田用上上 皆取嚴氏糞 膏沃衍饒 歲致錢六千.

물'18)이라 하였다.

> 선비의 학문은 실용을 겸하여 농·공·가의 이치를 포용하고, 농·공·가의 모든 일은 반드시 선비를 기다린 연후에 성취한다. 무릇 이른 明農이다, 通商이다, 惠工이다 하는 것은 '明·通·惠' 글자를 있게 한 사람이 선비가 아니고 누구이겠는가.19)

생활고에 찌든 서민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일은 반드시 선비의 학문적 바탕이 선행되어야 했다. 결국 서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은 선비의 도리이며 의무라 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고 있는 당시의 양반들은 여전히 농·공·상의 업을 기피하거나 수치스러워했다. 이에 자신들의 본분은 학문추구라는 여기며 사회적으로 고립을 자초하고 있었다. 이에 몸소 생산 활동에 뛰어들지 못하는 양반들의 그들의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 절박한 현실에 힘없는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는 존재로 전락하였다. 작가는 이런 상황에 나날이 성장하는 일부 부농들을 보며 양반들에게 본연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각성하고 행동으로 적극적 자세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작가는 作中 주인공을 천민역부 출신인 엄행수로 하였으니 그는 누구인가. 조선시대 가장 천시와 멸시를 받았던 최하층신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 속에선 학덕이 높아 뭇사람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던 인물 선귤자에게 흠모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선귤자가 엄행수를 바라보는 시각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다. 결코 조선시대 무시와 냉대에 핍박받던 천민이 아니다. 그는 '자신의 德을 더러움 속에 감춘 채, 속세에 숨어사는 위대한 은자'20)로 그렸으며, 더 나아가 자기의 본분을 망

---

18) 『연암집』 권16 「과농소초」. 故臣窃以爲後世農工賈之失業 卽士無學之過也.

19) 『연암집』 권8 「예덕선생전」. 士之學實兼包農工賈之理 而三者之業必皆待士而後成夫 所謂明農也通商而惠工也 其所以明之通之惠之者非士而誰也.

20) 『연암집』 권8 「예덕선생전」. 穢其德而大隱於世者.

각하고 勢利之交에 허덕이는 양반층에 대한 귀감으로서 형상화 되어 있다. 작자는 이런 파격적인 인물을 설정함으로 양반들의 도덕적 각성을 촉구하고자 하고 있다.

### 2) 「광문자전」의 광문

「廣文者傳」은 천한 신분인 廣文의 신의 있는 행위와 자신의 분수를 알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명예를 탐하여 남을 헐뜯고 시기하며 부정한 일을 저지르고도 반성할 줄 모르는 당시 시정주변의 인간군상을 비판하고 있다.[21] 이 소설에서 작가가 담고자 했던 당시 현실적 인식은 앞에서 다룬 「예덕선생전」의 예덕선생과 일맥상통하여 주인공 직업이 역부이고 걸인이라는 것일 뿐이다. 그는 최하층인 걸인에 불과하여 분에 넘치는 명예를 원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는 양반이 향유하는 것보다 훨씬 대접을 받음으로써 양반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반어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작가는 광문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연고로 세인의 추앙을 받았는지를 바탕으로 양반들의 무기력한 모습을 비춰냈다. 이에 예덕선생의 행위와 사고를 통해 당시 현실을 바라보는 연암의 인식세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즉 '광문은 비렁뱅이로 명성이 實情보다 지나치나 명예를 좋아한 자는 아니었다'[22]하여 걸인인 광문의 모습을 통해 당시 사회의 의롭지 못한 일부 몰염치한 인간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쓴 것으로 되어 있다.[23]

작가는 광문의 모습을 성인군자라도 쉽게 나올 수 있는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당시 연암 자신의 부류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입으로는 대의를 위해서라면 목숨마저 내 놓을 것 같이 부산을 떨지만, 정작 자신에게 위협적인 요인이 발생하면 몸 사리기에 급급했던 그들을 발견하게 된다.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했던 당시, 물질이 아니 인간에 대한 믿음과 온정이 넘치는 서민들의 의식에 작

---

21) 朴箕錫, 「燕巖朴趾源, -廣文者傳의 形成에 관한 考察-」, 李應百博士回甲紀念論文集, 普晋齊, 1983.
22) 『연암집』 권8 「광문자전」. 廣文窮丐 聲聞過情 美好名者.
23) 朴箕錫, 『朴趾源文學硏究』, 三知院, 1984, p.118.

자 스스로 인식의 변화가 있었으니, 인간에 대한 순수성은 신분고하는 무관했다.

> 광문의 됨됨이가 외양은 극히 추하게 생겼고 말도 누구를 움직일만하지 못했다. 입이커서 두 주먹이 들락날락할 정도였고 曼碩중놀이를 잘했으며 鐵拐舞도 할 줄 알았다. ····· (중략)····· 나는 부모형제도 처자도 없는 몸인데 무엇 때문에 집을 갖겠나. 또한 나는 아침이면 시정으로 노래를 부르며 다니다가 날이 저물면 부자 집의 문하에서 잠자면 그만이지.[24]

광문의 묘사를 보면, 그의 인물됨과 생활상은 초라하다. 신변잡기에 능하고 처한 현실에 비해 넉넉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정도였다. 자신의 신분을 비관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 남이 가지지 못한 비상한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분이 높은 것도 아니며, 남이 부러움을 살만한 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남의 것을 탐하거나 욕심 부리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고 그 속에서 삶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명예나 이익을 따라 부화뇌동하지 않으며,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려는 삶. 지극히 평범하고 단순한 삶의 자세이다. 광문 자신의 처지에 위축되지 않고 자신이 지닌 재주에 자부심도 갖고 있는 보기 드문 인물임에는 틀림없다, 연암이 살던 시대는 신분차별이 엄연히 존재하고, 여타의 행동은 시대를 거스르는 것이었다.

연암은 이런 무리한 설정들이 필요할 만큼 시대적인 현실인식이 필요했다.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가 기존체제에 반발하고 서민들의 잠재된 自意識이 싹트는 시기였으며, 이런 변화에 여전히 무감각한 양반들에게 심각성을 깨우치고자 했다. 양반의 시각을 대변하고 있는 관변 측에서 볼 때의 광문은 어디까지나 '무뢰배로 유명하며, 머리가 희끗하도록 총각 모양을 하고, 人心을 현혹하며 風俗을 어지럽히는 자'[25]일 뿐이다. 그리하여 광문을 사회 불안을 조성하는 부랑배로 간주하여 流配刑

---

24) 「연암집」 권8 「광문자전」. 文爲人貌極醜 言語不能動人 口大并容兩拳 善曼碩戱 爲鐵拐舞 ·····(中略)····· 吾無父母兄弟妻子 何以家爲 且吾朝而歌呼入市中 暮而宿富貴家門下.

25) 「英祖實錄」, 40年 4月 戊戌, 達文者 以無賴名於世 頭斑白而尙作總角形 誑惑人心 壞亂風

에 처했다. 이에 반해 연암은 그가 미천한 처지임에도 정직하고 순박한 성품을 잃지 않은 점을 강조하면서, 독신과 떠돌이 생활을 고수한 것도 그 나름의 달관에 의한 脫俗的 행동이라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의 전기에서도 결국 무죄 방면 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26]

「광문자전」에서 연암은 겸손하고 신의는 인간성을 서민층에서 발견하고 그들의 생활을 양반들에게 제시하여 각성하도록 하였다. 이런 취지에서 집필하다 보니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대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일반 서민의 삶을 통하여 직면한 사회적 모순을 극복하려 했다. 이러한 내용은 여타 다른 소설에서와 마찬가지로, 서민들의 전체적인 모습에서 바라보며 내재된 고단함을 읽지 못하고 있다. 그저 표면적으로 보이는 서민들의 삶이 자신들의 삶에 비교해서 본보기에 될 말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는 정도에 머무르는 고질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다. 즉 그들에게 필요로 하고 양반들이 각성하여 예전의 질서를 도모하기 위한 취사 선택적 성격이 강하다.

「광문자전」은 광문의 삶을 통해 그 속에서 자신의 위치에서 묵묵히 신의와 의리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인물을 그리고 있다. 명예나 물질에 연연해하지 않고. 안분자족하는 삶, 최하층인 걸인을 내세워 그의 진실 된 삶을 돌아보고 긍정적인 시각을 품도록 했다. 즉 양반층에 가려져 인식하지 못했던 양반들에게 삶의 모습을 발견하여 그들의 인간성을 긍정하고, 궁극적으로는 양반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윤리적인 생활을 비판하고 각성을 촉구한 것이다.[27]

### 3) 「양반전」의 富人

연암이 「自序」에서 "선비는 곧 천작인데, 선비의 마음으로 뜻을 삼으니 그 뜻은

---

化.

26) 김명호, 「朴趾源文學硏究」,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硏究院, 2001, pp.61~62.

27) 朴箕錫, 「朴趾源文學硏究」, 三知院, 1984, p.52.

어떠하겠는가? 형세의 이로움을 도모하지 못하고, 현달해도 선비의 도리를 떠나지 않고 궁색해도 선비의 도리를 잃지 않으며, 명예와 절개를 갖추지 않고 한낱 문벌의 지위를 재화로 여겨 세덕을 매매하니 장사꾼과 무엇이 다르리오. 이에 「양반전」을 지었다.[28]"고 하였다. 이로 보아 일견 '양반'의 주 인물로 볼 수 있지만, 양반은 풍자의 대상일 뿐, 관점의 대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 작품은 부를 축척한 서민지주가 旌善郡 양반을 상대로 양반신분을 사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당시에 나타난 신분 관계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사실적으로 부각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인이 축적한 자본의 힘을 빌어서라도 양반이란 신분을 취득하고자 했던 본의는 사뭇 달랐다.

> 양반은 아무리 가난해도 언제나 높고 영광스럽건만, 우리는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언제나 낮고 천하거든.·····(중략)·····이제 동네 양반이 가난해서 타 먹은 환자를 갚지 못하고 시방 아주 난처한 판이니 그 형편이 도저히 양반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장차 그의 양반을 사서 가져야겠어.[29]

부인은 양반신분에 간절했던 근본원인이다. 군수는 연암이 우려하던 기본질서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려거나 그들의 권력이 탐나서가 아니다. 사회의 변화에 억압받고 핍박받던 서민들이 그동안의 부의 축척으로 양반보다 경제적 우월성이 높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그럼에도 자신에 대한 국가와 지배층의 그에 상응하는 변화가 없었으니, 서민들은 여전히 양반들에게 보잘 것 없는 존재이며, 비주류에 불가했다. 그런 냉대와 푸대접에 익숙해져 있던 그들이 그 근원을 찾게 되고 곧 양반신분이 아니라는 신분적 한계가 있었다.

부인이 양반신분을 매매하고자 했던 이유인 즉 그동안 양반이 누려왔던 권위의

---

28) 朴趾源, 「自序」, 「燕巖集」. 士酒天爵 士心爲志 其志如何 弗謀勢利 達不離士 窮不失士 不飭名節 徒貨門地 酤鬻世德 商賈何異 於是述兩班.

29) 「연암집」 권8 「양반전」. 兩班雖貧 常尊榮 我雖富 常卑賤 不敢騎馬·····(중략)·····今兩班貧不能償糴方大窘 其勢誠不能保其兩班 我且買而有之.

식의 답변이었다. 즉 현재의 '부' 가 모든 것을 대변하고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언제나 그래듯이 양반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자신들 역시 한 인간임을 자각한 것이다. 평생을 인간 이하의 굴욕과 수모를 받으며 살아온 세월이 한스럽고 그런 삶을 이제는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본능에서 우러나온 것이었다. 실제로 서민들이 당장 양반신분을 부를 이용하여 매매했더라도 당시의 양반처럼 실권을 쥐고 세상을 좌지우지 할 수 없었다.[30] 그럼에도 이런 사회현상이 비일비재하게 성행하고, 부를 얻게 된 서민들이라면 누구나 신분 상승만이 그들의 한계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라 여겼으니, 보편화된 불평불만일 수밖에 없다.

군수는 양반이 되길 갈망하는 부인에게 양반으로서 지켜야할 본분을 제시한 제일문권은 부인의 의지를 약화시키기에 충분했다. 즉 부농이 그토록 바라던 양반의 생활이 지극히 형식적이고 구속적인 것임에 실망을 금지 못하며 자신이 살아온 생활고 너무나 동떨어져 있음을 실감한다. 양반이란 생활이야말로 신선놀음이라 여겼던 부인은 그런 양반의 이질적인 생활에 그새 부담으로 나타나고 자신이 바라던 현실적인 제안을 바랬다. 그러나 군수는 흔들리는 부인의 마음에 두 번 다시 자신의 신분을 넘보지 못하도록 못을 박은 것이 제이문권이니 그 강도는 양반이 되고자 했던 마지막 기대마저 확실히 접게 하고도 남는다.

> 부자가 그 증서 만들기를 중지시키고, 혀를 빼면서 말하였다. '제발 그만 두시오. 참으로 맹랑합니다 그려. 당신들이 나를 도둑놈이 되라 하시는 군'.[31]

군수가 제시한 지배층의 생활수칙에 부인은 감당하지 못하니, 혀를 내두르며 그런 양반행세는 도둑놈이나 할 짓이라 포기해 버린다. 그토록 바랬던 양반의 실체를

---

30) 金容燮의 著書에 보면 (「朝鮮後期農業史硏究, -農村經濟·社會變動-」, 一潮閣, 1970, p4)이 시기에 쓰인 영·정조시대에 있어서의 신분상승은 '名譽職' 정도였고, 실질적인 상승은 아직 시기가 이르다고 했다.

31) 上揭書, 富人中其劵而吐舌曰 已之 孟浪哉 將使我爲盜耶 掉頭而去 終身不復言兩班之事.

알고 나니 자신처럼 무지 랭이 인생에게 마저도 쓸모없는 자리이며, 그런 자리를 간절히 바랬던 자신들이 한심하다 여겼다. 즉, 양반의 허상에 실망한 부인은 양반 신분에 대한 기대를 미련 없이 떠난다. 순박한 부인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지배층의 이면을 파헤치고자 한 것이 아니었다. 단지 자신이 살아온 삶에 회의를 가지게 되었고, 자신도 한번 태어난 인생처럼 저 양반들처럼 인간적인 대우를 받고자 하는 소박함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18·9세기의 조선 사회는 근대 지향적인 일대 변동을 겪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基層적인 변화로서 농민층의 동향을 들 수 있는데, 농업생산력의 현저한 발전에 따라 종래의 농민층이 양극으로 분해되기 시작한 현상이 곧 그것이다. 일부의 농민들은 새로운 농업기술의 적용, 경작 규모의 확대 등을 통해 부를 축적하여 지주 계층으로 부상하는 반면, 대다수의 농민들은 그 나마의 토지도 상실한 급속히 몰락해갔던 것이다. 이러한 밑으로부터의 변화는 사회의 기본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없었다.

실재로 이때 부를 축적한 부인은 새로운 신분체계인 평민지주로 등장하면서, 심지어 일정한 양의 곡식을 바치고 성명이 기재되지 않은 관직수여증인 空名帖을 사서 양반 신분으로 상승하기조차 하였다. 그 반면에 정권에서 소외된 양반으로서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소위 殘班도 생기었다. 이리하여 양반과 상민의 관계는, 비록 그 구분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인 재부에 토대를 두고 크게 변질되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모든 현상은 양반사회의 신분질서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32]

경제력을 확보한 부인 곧 良·賤신분의 신흥 지주계층은 그들의 부를 봉건적으로 수탈로부터 지켜나가기 위해 온갖 수단을 통해 양반계급에 끼어들고자 했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지방수령과 양반지주의 장악 하에 있던 鄕村의 지배질서와 상충하는 것이었다. 「양반전」에서 부차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서민지

32) 李基白, 「韓國史新論」, 一潮閣, 1990, p.299.

주와 鄕班, 서민지주와 지방 수령간의 갈등관계[33]이다.

결국 소설 속 양반신분매매가 급박했던 과정에 비해 맥없이 결과를 돌출해 냈으니, 이는 연암이 처음부터 의도되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 2. 지배계층의 유형에 따른 인식의 틀

연암이 활동하던 시기적으로 壬·丙兩亂으로 인한 지배질서의 붕괴로 봉건사회의 해체가 촉진되었고, 17세기 후반부터는 일반적인 사회현실상으로 대두되기 이르렀다.[34] 민생들의 혼란과 정신적 충격은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에 이르게 되니, 주로 경제 방면에서 일어난 實事에 부응하며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여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런 개혁의지의 바람을 타고 등장한 집단이 대체로 양반이면서 朝鮮朝 官僚국가의 권력체계에서 이탈 또는 소외된 그들, 즉 실학자라 일컬었다.[35]

연암은 기존 지식인들과 달리 직면한 사실에 개방적이고 독창성인 자세로 현실을 바라보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특히 중국을 부강하게 했던 원동력을 당시 중국인들의 이용후생정신에서 비롯됨을 자각하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 실질적인 낙후된 경제현실을 바로잡고, 안이한 삶을 영위하고 있던 당시의 지식인들에게 적극적인 현실참여를 독려하려 했다.

『열하일기』에 수록된 「허생전」·「호질」은 연암이 中國 燕京, 熱河一帶를 여행하고 돌아와 거기에 느낀 감회를 사실적으로 집필한 것이다. 연경을 가기 전 政界의 분위기를 보고 체험하면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권력다툼에 끼어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 양반에 대한 자긍심이 누구보다도 컸던 연암으로서 그들의 탐욕과 위선에 실망을 하게 되었다. 자신 역시 양반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류를 혐오하게 되고 비판을 가하게 된다. 이런 현실을 피하고자 은둔에 이르다가 중국의

33) 김명호, 『朴趾源文學硏究』,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硏究院, 2001, p.55.
34) 姜萬吉, 『朝鮮後期 商業資本의 發達』, 麗大出版部, 1981.
35) 李佑成, 「實學硏究入門」, 『實學硏究序說』, 一潮閣, 1974, p.7.

열하일대를 돌아 볼 수 기회를 얻게 되고, 그곳에서 보고 느낀 선진문물과 사상에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된다. 결국 관직의 길을 포기하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자신의 이상과 포부를 담은 창작에 심혈을 기울이게 된다. 이런 작가의 사회에 대한 개혁의도가 녹아있는 그의 소설을 통해 당시를 어떻게 바라보고 비판하고 개혁하려 했는지 짚어보고자 한다.

이에 다음에는 자신이 속한 집단인 지배계층을 주인공으로 삼아 그들을 통해 현실 속 양반들을 꼬집어 비판하고, 황폐화된 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진정 연암이 바라는 이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본다. 아울러 사회의 주도세력으로 거듭나야 할 지배계층의 모습을 재현하면서 오는 현실 속 작가의 신분적 한계 역시 살펴본다.

### 1) 「양반전」의 양반

「양반전」은 역사적으로 급변했던 조선후기의 봉건체제의 붕괴를 직전에 둔 시대적 상황에 처한 주인공들을 통해 신분갈등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런 복잡다단한 현실에 적응하지 못한 양반층의 무기력한 모습과 반대로 사회적 약자인 서민들이 경제적인 힘을 바탕으로 치열한 생존경쟁에 임하는 모습을 반영하여 양반들이 각성을 촉구한 작품이다. 단순히 겉으로만 보이는 양반들의 허상을 지적하고 폭로하여 서민들의 웃음거리 존재로 卑下시키고자 함은 결코 아니다. 상대적으로 천하지만 양반이 지니지 못한 인간적인 모습이 있음을 인정하고, 신분을 벽을 넘어 그들의 내면적 本性과 진실성은 높이 평가하고 독려하였다. 이에 서민의 인간성을 지배층도 무조건 외면할 것이 아니라 배울 것이 있다면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자서」에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사리사욕에 눈멀어 있는 양반들을 행해 선비는 하늘에서 정해준 만큼 신성하고 숭고한 위치임을 강조한다. 이에 그런 선비가 될 수 있는 양반이라고 하는 신분을 사사로이 매매나 양도할 수 없으며, 자신의 본

의와 달리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태에 질타하였다.

이로 훼손되고 문란해진 근본 질서를 바로잡고 예전의 양반의 본성을 되찾아 자성과 각성을 통해 사회의 淨化를 이루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각고의 노력으로 기존의 사회질서 속에서 국가의 유교적 이상 사회를 지향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건히 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평소 연암의 소신이며, 염원이기도 하였다.

예컨대, 실학파에 속했던 당시 지식인들이 대부분 그랬던 것처럼 연암도 기존 제도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으나, 지신이 속한 제도적 신분과 틀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와 갈등을 맛보아야 했다. 이러한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기인식과 현실인식이 필요했고, 당대의 현실을 비난하고 개혁하려했던 '士意識'으로 나타났다. 현실추구와 이상과의 갈동 속에서 서민에 대한 따스한 애정으로 작품 속에 표현되어 당대의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다.[36]

정선에 사는 양반이 생계의 유일한 수단인 양 빌려다 먹은 還穀이 천석이나 되었고 觀察使에 적발되면서 옥살이에 당하게 된다.

> '양반' 은 士族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다. 정선고을에 한 양반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어질면서도 글 읽기를 좋아했다. ·····(중략)····· 군수는 그 양반이 가난하여 갚을 힘이 없는 것을 딱하게 여기고 차마 가두지 못 하였으나 또한 무슨 도리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양반은 밤낮 울었으나 해결할 방도를 찾지 했다.[37]

어느새 관가에서 갚지 못하고 빌려온 곡식이 천석이나 된 것이다. 소위 국가의 녹을 먹는 관리가 국가의 재물이 남용되는 상황을 수수방관하면서 되려 무능력을 탓하기보다는 연민과 동정 일색이었다.

당시 양반이 빌려간 社還米는 어떤 것인가. 백성과 관여와 春窮·秋前의 어려운 시기 견딜 수 있도록 궁여지책의 일환으로 축적해 둔 양식임에 불구하고, 무위도식

---

36) 李箕錫, 「朴趾源文學硏究, -漢文短篇을 中心으로-」, 三知院, 1984, pp.121~122.

37) 「연암집」 권8 「양반전」. 兩班者 士族之尊稱也 旌善之郡 有一兩班 賢而好讀書 ·····(中略)····· 郡守意哀其兩班貧 無以爲償 不忍囚之 亦無可奈何 兩班日夜泣 計不知所出.

의 무능력한 양반들 양식으로 악용되고 있으니 그 피해를 전적으로 피지배계층에게 전가되었다. 경제적 능력이 부재한 양반에게 자신의 권리를 남용하여 사환미를 빌려주는 행위가 두메산골에서도 버젓이 행해지는 행태가 시대적 대세였으니, 진정 연암 자신이 바라는 양반의 모습이 아니었다. 의식 없는 정선양반도 문제지만 당시의 공·사 구분을 못하고 무분별하게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휘두르는 관리들 작태 역시 문제라 지적하고 있다.

> 당신이 한평생 글 읽기를 좋아했지만, 관가의 환곡을 갚는데 아무런 도움도 못 되는 구료. 쯧쯧. 양반 양반 하더니 한 푼어치도 못되는구려.[38]

이제껏 지켜보던 부인마저 실생활에 실용적이지 못한 것이 글 읽기라 매도에 이른다. 심성은 누구보다 깊었지만 정선양반은 평생을 글 읽기에만 몰두하고 보니 가정을 돌보지 못했다. 그런 가정을 실재로 이끌어가는 이는 부인이었으니, 그 인내력의 한계를 넘어섰다.

실재로 그 시대를 살아갔던 수많은 지식인들이 자신의 현실과 이상 속에서 번민과 방황을 거듭하며, 단지 경제 자립도가 없는 부류로 낙인 받고 따가운 눈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이 많았다. 이에 현실 대처에 둔한 무능력으로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들의 곧은 본성이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훼손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없는 것이 연암의 갈등이었다. 양반이 우연한 기회를 얻어 그 동안 빌린 곡식을 관가에 갚으니, 군수가 기이하게 여겨 양반을 찾아가 사정을 물었다.

> 양반은 벙거지를 쓰고 배 잠방이를 입은 채로 길바닥에 엎드려, '쉰네' 라고 칭하면서 감히 올려다보지를 못하였다. 군수가 깜짝 놀라 내려가서 부축하고, "귀하는 어찌 이다지 스스로 낮추어 욕되게 하시는가요?" 하고 말했다. ·····(중략)····· 이미 제 양반을 팔아서 환곡을 갚았지요. 동리의 부자 사람이 양반 맞습니다. 쉰네가 어찌 다시금 뻔뻔스럽게 옛날처럼 양반 행세를 하면서 스스로 높이겠습니까.[39]

---

38) 上揭書, 生平子好讀書 無益縣官糴 咄兩班 兩班不直一錢.

정선양반에게 온 우연한 기회란 숙명처럼 여겼던 자신의 양반신분을 부농에게 매매하여, 그 동안 도덕적 양심에 고통 받았던 천석의 빚을 탕감한 것이다.

군수가 찾아간 이유인 즉 그 동안 무책임하게 국가의 재물을 빌려가고 갚지도 못한 죄를 물어도 여죄가 삭감이 안 될진대, 그 빌리면서 받았을 양반으로서의 수치심을 위로하고자 하였다. 공평무사해야 할 관리가 아닌 동료집단의 배려와 관심에서 나온 전형적인 지배계층의 면모이다. 군수 역시 양반이고 보니 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무책임·무대응으로 일관한 정선양반 역시 이런 사태가 빚어진 것에 대해 각성과 자아비판이 있어야 하지만 그보다 겁 없이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신분매매를 감행한 부농에 대한 분노가 더 지배적이었다. 이런 사태를 수수방관하면 지켜볼 수만은 없던 군수가 바로 대책마련에 나선다. 우선 서민들의 불평불만을 잠재우고, 한번 떨어진 양반의 위신과 체면을 되찾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다.

> 군자 답구료 부자시여. 양반답구려 부자시여. 부유하면서도 아끼지 않으니 의로운 일이요, 남의 어려움을 도와주니 어진 일이요, 비천한 것을 싫어하고 존귀한 것을 사모하니 지혜로운 일이다. 이야말로 진짜 양반이로구나. 그러나 사사로 팔고 사고서 증서를 해 두지 않으면 訟事의 꼬투리가 될 수 있다. 내가 너와 약속을 해서 群民으로 증인을 삼고 증서를 만들어 미덥게 하되 본관이 마땅히 거기에 서명할 것이다.[40]

이제 부농은 더 이상의 인간 이하의 굴욕적인 생활에서 탈피하여 자신의 부와 양반신분을 교환하기에 이른다. 물질에 집착하는 것을 양반의 수치로 생각했던 그들이 현실에 굴복하고 만 것이다. 군수 역시 피할 수만 피하고 싶었던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신분체제에 위기의식이 발동하였다. 실제로 소설에나 나올 수 있는

39) 上揭書, 兩班氈笠 衣短衣 伏塗謁稱小人 不敢仰視 郡守大驚 下扶曰 足下何自貶辱若是 ·····(中略)·····已自鬻其兩班 以償糴 里之富人 乃兩班也小人復安敢冒其舊號而自尊乎.

40) 上揭書, 君子哉富人也 兩班哉富人也 富而不吝 義也 急人之難 仁也 惡卑而慕尊 智也 此眞兩班 雖然 私自交易而不立券 訟之端也 我與汝 約郡人而證之 立券而信之 郡守當自署之.

허구라 외면하고 싶을 정도로 연암 자신도 당시의 양반의 사회적 위치가 여기까지 오는 것을 개탄스러워 하면서도 현실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고심했다.

양반들이 자신들의 이권에 눈이 멀어 치열한 당쟁과 중상모략에 몰두하고 있을 당시, 서민들은 묵묵히 자신들의 삶을 개척하여 부를 축적하고 사회적으로 경제적 신분상승을 이루었다. 그런 현실을 연암은 십분 감안하고 있었기에 우선 그들이 지금의 위치에 오른 노력을 감안하여 칭송하면서 연암 역시 양반인지라 자신을 대변하고 있는 정선양반의 처지를 가엾게 여기니 양반의 위신 또한 살리기 위해 노력한다. 이는 그의 연민에서 나온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엄연히 존재해야 할 신분체제가 무너지고 금전 몇 푼에 자신과 서열상 동격을 이룰 수 없으니, 그런 시도를 감행하려는 서민들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결론에 봉착한다. 이것이 연암의 신분적 한계이며, 이 소설의 근본적인 한계인 것이다.

신분적 한계에서 시작된 양반매매 작성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는데, 군수가 작성한 第一文券은 비록 철저한 인고와 극기를 강요하는 형식적 생활이지만, 그것은 최소한 남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는, 당시 양반이라면 마땅히 지키도록 강요되고 있는 덕목들이다. 반면 第二文券에 제시된 양반의 모습은 포악무도하고 부정과 비리 일색이었다. 권력에 아부하며 부정한 일을 자행하는 거짓 선비와 극악무도하게 하층민을 괴롭히는 향반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41] 이는 군수가 양반으로 위신과 체면을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덕목이면서, 양반이라는 신분에서 행해지는 절대적인 것들이다.

결과적으로 군수가 원하는 대로, 또 연암의 의지대로 현실에는 엄연한 신분적 차이가 존재하며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성실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각인시킨 것이다. 부농의 신분상승을 막기 위해 대가는 치명적이라 할 수 있으니, 지배계층의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다.

연암이 생각하는 양반이라 함은 '명예와 절개를 삼가지 못하고 문벌과 지위를

41) 朴箕錫, 『朴趾源文學硏究』, 三知院, 1984, p.128.

재물로 여겨 대대로 전해온 덕망을 팔아넘기면 장사치나 무엇이 다르랴' 하는 것과 일치하니, 즉 명예와 절개를 지키는 존재만이 진정한 양반의 면모를 갖추었다 여겼다. 양반신분을 사고파는 사람들은 '말세에 넋 빠진 이들' 이나 하는 짓이라 하였으니 연암의 시각에서 생활고에 밀려 신분을 포기하는 양반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다. 즉 신분상승을 희구하는 계층과 신분상승을 억제하는 계층간의 갈등이 文面에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실적으로 신분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던 당시의 사회상을 미루어 볼 때 신분의 동요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작가의 항변이었다고 여겨진다.[42]

「양반전」은 한적한 시골양반이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해 양반신분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고, 그런 그를 수수방관할 없었던 군수가 나서서 부농의 불손함을 일언지하에 포기하게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설 속의 내용이 현실에서도 간혹 벌어지고 있으며 연암은 대명천지에 그런 행태가 빚어지는 것을 간과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신분에는 엄연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으면 양반신분매매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 여겨, 군수를 통해 제시한 제일문권과 제이문권의 내용은 부농의 의지를 단숨에 소멸시켰다. 여기에 서술된 문권은 단순히 소설 속에서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닌 연암이 살았던 이들에게도, 특히 혹시라도 양반매매를 염두 해 둔 이들까지 더불어 하나의 본보기로 적용되고 있다. 이 작품은 표면적인 신선 같았던 양반의 허실을 고발하고 그들의 무능력과 안일함을 풍자하여 양반들의 해이해진 도덕성을 회복하였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양반에 권위에 도전하는 이들에게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삼가고, 망각한 자신의 본분에 만족하며 살아가길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 2) 「허생전」의 허생

연암은 생존했던 李朝 영조 때부터 純祖때는 사회 내부적으로는 농업 생산력의

42) 李東根, 『朝鮮後期 <傳> 文學硏究』, 太學社, 1991, p.272.

발전, 상업적 농업 생산의 발달, 합리적 농업경영 등의 조건을 배경으로 봉건지주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부농층의 출현과 이에 따른 농촌사회의 분화, 大同法의 시행과 화폐의 유통을 배경으로 한 상업자본의 발달과 상업 활동의 증대, 수공업의 성장, 임금노동자의 출현, 그리고 경제적으로 성장한 서민층의 경제력에 의해 의한 신분격상의 획득하는 등 자본주의가 싹트고 있었다.[43]

사상적으로는 경제적 논리에 밀려 기존의 질서를 지탱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주자학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집권층은 이전투구식으로 자신들의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로 악용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식상한 일부 지식인들은 시대에 부응하는 변화를 기대하게 되었고, 절망적인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묘책을 강구하니 바로 실학이었다. 새로운 학풍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실학은 공리공론에 젖혀있는 기존의 모습에서 벗어나게 하였으니, 당시 실정에 맞는 인식의 전환을 하는데 그 몫을 담당하고 있었다.

「허생전」은 연암이 앞서 언급한 역사적·사회적 현상을 반영하여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자 한 작품이다. 당시 사회가 가진 현실 부조리와 모순에 대한 비판이 날카로웠으며, 해결책 또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다.

연암은 「허생전」이란 작품을 통해 당시 복잡다단했던 시대만큼 사회 전반에 걸쳐 만성화된 문제들을 담아 그 개혁의지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한 주제에 한정해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그만큼 다변적인 시대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주인공인 허생이 글 읽기에만 몰두하다 가정 돌보기를 등한시 했다는 연유로 자신의 부인에게 면박 받고 그길로 주저 없이 책을 덮는다.

> '당신은 평생토록 과거도 보지 않으니, 글은 읽어서 무엇 하시려오.' 허생은 웃으면서 대답했다. '나는 아직 독서를 익숙히 하지 못하였소.' '그럼 장인바치 일이라도 못하시나요?' ·····(중략)····· 당신이 밤낮으로 글을 읽었다더니, 겨우 '어찌할 수 있겠소' 라는 말만 배웠군요. 그래 쟁이 노릇도 못 하고 장사치 노릇도 못 한다면, 도둑질은 왜 못하시나요.[44]

---

43) 金容燮, 「朝鮮後期農業史硏究 -農村經濟·社會變動-」, 一潮閣, 1970.

허생은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평소와 달리 글 읽기를 포기한 것이다. 자신이 바라는 이상과 달리 하루 끼니를 걱정해야할 만큼 그의 현실은 처참했다. 실제로 스스로 토지를 경작하지 않는 처지에 관직 임용에 대한 미래까지 불투명하다보니 그 부인의 마음은 타 들어가고도 남았다. 그 길로 長安의 거부인 卞氏를 찾아 만금을 빌려 제사에 반드시 쓰이는 물품을 모조리 사들여 열배의 이익을 남기더니 다시 이번에는 자신이 번 재물을 가지고 濟州道의 말총을 죄다 사 버렸다.

> 대추·밤·감·배·감자·석류·귤·유자 등의 과일들을 모두 갑절의 갑을 주고 사서 간직하였다. 허생이 과일을 몽땅 쓸었기 때문에 온 나라 잔치나 제사를 못 재낼 형편에 이르렀다.·····(중략)····· '몇 해만 있으면 온 나라 사람들이 머리를 감싸지 못할 거야' 하였다. 허생이 이렇게 말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망건 값이 열 배나 올랐다.[45]

허생이 독과점행위를 한 것이니, 산 물건들과 취한 행위에 살펴보면 의미하는 바가 크다. 우선 그가 산 물건들이 어디에 쓰는 것인지, 매점한 과일들은 양반들이 제사 때 쓰는 제수과일과 제주도 말총이다.

당시 유교사회는 조상에 대한 제사를 중시하였다. 그러나 연암이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그런 의식의 불적절함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이다. 진실함을 담기보다는 남의 耳目에 급급해서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것에 치중하는 것으로, 사치와 허영이 가득하다. 어려운 시기 지나친 허례허식으로 인한 비생산적이며 불필요한 소모일 뿐이었다. 또 허생이 그런 소모품를 거둬들인 방법이다. 사회적으로 반드시 공급되어야 할 물품을 알면서도 독점을 한 것이니, 도의적인 상거래에서 용납 되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는 고의적 상거래가 성행할 수 있는 당시의 경제적 취약성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로 조선후기로 넘어오면서 매점매석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심각했다.

---

44) 『연암집』 권8 「허생전」. 子平生不赴擧 讀書何爲 許生笑曰 吾讀書未熟 妻曰 不有工乎·····(中略)····· 晝夜讀書 只學奈何 不工不商 何不盜賊.

45) 上揭書, 棗栗柿梨柑榴橘柚之屬 皆以倍直居之 許生榷菓 而國中無以讌祀 ·····(中略)····· 居數年 國人不裘頭矣 居頃之 網巾價至十倍.

독과점을 한 허생이 '겨우 만금으로써 온 나라의 경제를 기울였으니 이 나라의 얕고 깊음을 짐작할 수 있구나' 하고 말했던 것처럼 말이다. 한 나라의 수요·공급이 한 개인에게 철저히 우롱당하는 현실은 연암이 우리나라의 경제 유통구조의 폐쇄성을 염두에 두고, 경제구조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양반이란 물질에 연연해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으니, 자신들의 쓰는 물품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자신이 유용하고 있는지 모른 이가 태반이다. 연암의 현실의식을 실현하고 있는 허생은 그 여세를 몰아 자신의 역량을 시험하기에 조선은 너무 경제적기반이 취약함에 실망하고, 해외에서의 기지를 발휘한다.

> 삼년동안 먹을 식량만 쌓아 놓고, 나머지는 모두 배에 싣고 長崎島[46]에 가서 팔았다. 長崎島는 삼십일만 호나 되는 일본의 屬州였는데, 때마침 커다란 흉년이 들어 그 쌀을 다 풀어먹이고, 은 백만 냥을 거두었다. 허생은 '이제야 조금 시험해 보았구나' 하고 탄식한다.[47]

연암은 협소한 자신의 나라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제현실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한 것이니, 상업적 신용을 바탕으로 한 국제적 교역의 발달을 개척하는 것이었다. 이미 肅宗때부터 국제무역도 큰 발전을 가져와 韓中 邊境貿易과 釜山, 東萊, 서울 등지의 韓日 무역도 대폭 진행되었으니, 이러한 국제무역의 일환으로 연암의 「도강록」 『열하일기』에서는 중국의 燕商과 조선의 灣商들이 義州와 燕京사이를 나들면서 빈번하게 物化를 교역하고 국내물가를 공제하는 상황을 친히 근거하여 상세히 서술하였다. 이시기 국내외 무역은 個體상업의 자본축적과 사회적 상품화폐경제의 발전에 거대한 영향을 미쳤다.[48] 허생은 해외무역을 통해 벌어들인 대부분을 미련 없이 버린다.

---

46) 여기서 말하는 長崎島는 朴齊家의 「北學議」에 '천하의 진귀한 물건, 중국의 골동품과 書畵가 輻輳하는 國際貿易港' 이라 기술되어 있다.

47) 「연암집」 권8 「허생전」. 留三年之儲 餘悉舟載往糶長崎島 長崎者 日本屬州 戶三十一萬 方大饑 遂賑之 獲銀百萬 許生歎曰.

48) 李岩著, 「燕巖美學思想硏究」, 「國學資料院」, 1995, p.9.

그건 알기 쉬운 일일세. 우리 조선은 배가 외국과 통하지 못하고 수레가 나라 안에서도 두루 다니지 못해서, 온갖 물화가 제자리에 나서 제자리에서 사라지지요.·····(중략)····· 의원의 만 가지 약재 중에 슬그머니 하나를 독점하면, 한 가지 물종이 한 곳에 묶여 있는 동안 모든 장사치들이 고갈될 것이매, 이는 백성을 해치는 길이 될 것입니다. 후세에 나라 일을 맡은 자 가운데 만약 나의 이 방법을 쓰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그 나라를 병들게 하고 말거요.[49]

富를 획득한 경로를 알고자 하는 변씨의 물음에 미비한 경제기반으로 인해 지역 간에 물품교환의 원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다. 즉 用車用舟를 할 수 없어 한 곳에 집약된 물건이 넘쳐나도 그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신이 일금 만금으로 조선의 모든 물품을 독점한 일련의 행위에 대한 허실을 지적하였으니, 그는 각 지방의 특산물과 백성들의 필수품들 순수한 거래를 통해 매매교환이 성립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취한 매점매석은 錢을 단 기간에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나 좁은 나라에서는 그 폐단이 실로 대단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로 인해 야기 될 수 있는 피해의 대부분은 힘없는 백성들 몫이라는 것이다. 상업유통에 있어서 수륙교통의 발전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자국의 지리적 여건 상 경제적 성장에는 한계가 있으니 진정 국가부강·민생안정을 위해서 외국과의 무역을 통한 부의 축적만이 유일한 것이라 명시한다.

경제관념에 남다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연암도 태생적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을 다녀 온 후 낙후·침체된 자국에 대한 실체에 통감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바로 상공업을 융성시키는 것이었다. 조선사회는 전통적으로 상공업에 대한 경시풍조가 절대적인지라 지배층 역시 여기에 종사하는 이가 드물었다. 연암도 의식에서 제외될 수 없으니, 그의 선택은 당시 현실적 요청에 따른 불가피한 것이었다.

---

49) 「연암집」 권8 「허생전」. 此易知耳 朝鮮舟不通外國 車不行域中 故百物生于其中 消于其中·····(中略)·····醫之材萬 潛停其一 一貨潛藏 百賈涸 此賊民之道也 後世有司者 如有用我道 必病其國.

연암이 허생을 통해 실현시키고자 한 것은 지리적 협소함을 극복하기 위해 舟車의 운행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物荷의 유통을 신속히 하는데 능률적이고 편리한 수단으로서 상공업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었기 때문이다.[50] 특히 허생이 돌려 준 錢에 대해 변씨가 이자 돈을 돌려주고자 할 때의 그의 반응인데 '그대가 어찌 나를 장사치로 대우한단 말인가?' 하고는 소매를 떨치며 가버렸다.[51]

변씨는 자신의 상거래에 근거하여 빌려간 錢에 대한 이자를 돌려주려 한 행동에 허생은 자신을 변씨와 같은 장사치로 여기는 것으로 곡해하여 격분한 것이다. 이는 자신과 그들은 엄연히 신분에는 구분이 있으니 같은 서열에 놓이는 것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는 반응인 것이다.

초라한 몰골에서 풍기는 당당함이란 내 비록 궁핍하나 단지 물질에서만 우세한 장사치와는 격이 다르다고 여기는 것이다. 또 자신이 아내에게 반 떠밀려 나온 것이 錢 때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하찮게 여겨 거액을 바다에 던지는 행동, 자신은 학문에 매진해야 하는 양반이기에 錢에 연연해 할 수 없다는 자신감 등 許生의 말과 행동에서 지배계층의 시각에서 상공업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다.

즉 현실 극복의 일환으로 상공업을 장려하고, 상공업 발달을 하기 위해서는 학문적·이론적 지배계층의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자신들의 역할은 여기까지 이니, 상인들은 자신들이 맡은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현실적 신분이동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허생의 능력을 간파한 변씨가 허생에게 국가의 대사를 위해 나서기를 권유하다.

> 요즘 사대부들이 지난 번 南漢山城의 치욕을 씻으려고 하니, 지금이야말로 슬기로운 선비들이 팔뚝을 걷어붙이고 지혜를 펼칠 때이지요. 선생의 그 재주로 어찌 괴롭게 파묻혀 지내려 하십니까?·····(중략)·····내가 번 돈이 족히 九王의 머리를 살 만하였으되 그 돈을 다 쏟아버리고 온 까닭은 아무데도 쓸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네.[52]

---

50) 車溶柱, 「許生傳의 矛盾과 限界性에 대한 考察」, 「韓國學論集」 9집, 계명대, 1992.
51) 「연암집」 권8 「허생전」. 君何以賈竪視我.
52) 「연암집」 권8 「허생전」. 方今士大夫欲雪南漢之恥 此志士扼腕奮智之秋也 以子之才 何自

지금 실권 층이 팔뚝을 걷어붙이고 하는 일은 국익에 결코 도움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무의미한 행동에 지나지 않으니 본인이 굳이 나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진정 국가에 유익한 인사들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 자신들의 학덕과 능력을 알아줄 사회적 풍토가 아님을 비난하고 나섰다. 일찍이 趙聖期[53], 柳馨遠[54]와 같은 출중한 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재능을 알아보지 못하고 보낸 사회를 원망하며 그들의 허망한 죽음이 개탄스러워했다.

재차 자신의 능력을 현실 참여에 힘써 줄 것을 바라는 변씨의 권유에 허생은 당시의 실권자인 李浣과의 만남이 성사되는데 그들의 만남 역시 심상치 않았으니 찾아온 이완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진다.

> 이공이 들어왔지만, 허생은 편안하게 앉은 채 일어서지 않았다. 이공이 자기 몸을 둘 곳이 없어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런 자세로 나라에서 어진 인재를 찾는다는 뜻을 말했다. ·····(중략)····· 천하의 諸侯를 거느리고 적당한 사람을 하늘에 천거한다면, 잘 되면 大國의 스승이 될 것이고, 못되어도 伯舅之國의 지위를 잃지 않을 것이다. 이 대장이 힘없이 '사대부들이 모두 삼가 예법을 지키는 판인데, 누가 머리를 깎고 되놈의 옷을 입으려고 하겠습니까' 하였다.[55]

어정정한 자세로 들어와 유능한 인재를 구한다는 이완의 말에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니, 하나는 나라에 진실로 유능한 인재를 필요로 한다면 그에 합당한 노력이 있어야 하니 왕의 의지를 보여 달라는 것이며, 그 둘은 실권 층의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지를 타진하니 쓸데없는 名分에 매달려 명을 달래기보다는 淸과의 관계개선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진정 淸나라에 대한 설욕을 위해 북벌을 하고자

---

沉 冥以沒世耶·····(中略)····· 其銀足以市九王之頭 然投之海中而來者 無所可用故耳.

53) 趙聖期(1638~1689)는 조선후기 실학자로 적국의 사신으로 보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능력이 出衆했고, 학문과 해학에도 능한 큰 재목이었지만 匹士로 생을 마감했다.

54) 柳馨遠(1621~1673)은 『磻溪隧錄』의 지은 작자로 유명한 조선후기 실학자.

55) 上揭書, 李公無所措躬 乃叙述國家所以求賢之意 ·····(中略)····· 率天下諸侯 薦人於天 進可爲大國師 退不失伯舅之國矣 李公憮然曰 士大夫皆謹守禮法誰 肯薙髮胡服乎.

한다면 가식과 위선에서 벗어나 현실적 교류로 실속을 차려야 한다는 것이 그 마지막 제안이다. 그러나 이완의 대답은 허생은 이미 예상했던 대로 불가함을 내비치자 그런 이완의 반응에 분노하고 현실참여를 거부했다.

당시 집권사대부들이 진정으로 남한산성의 치욕을 설욕하기 위한 북벌책을 추진하였던 것이었다면 허생이 제시한 조건을 수락하지 않을 리 없었겠으나, 당시의 집권층이 북벌론을 내세운 것은 그들의 정권을 확고히 하기 위한 수단에 불가한 것이었고, 그것이 실제로 실현 될 수 없음을 그들도 뻔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56]

당시의 사회제도의 모순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은 실학자들의 공통된 특성이기도 했으니 그들에게도 역시 生存의 문제였다. 또 明에 대한 前官禮遇식 발상은 무가치한 것이며 좀 더 현실적이고 생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역설하니, 경제적 실효성에 중심을 두어 현재 집권층의 기득권을 거둬들여 활용하여 청과의 관계개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은 변방의 일개 오랑캐라는 불가하다 인식으로 인해 지배층은 여전히 냉담했으니 그들과의 융합은 현실로 불가능 한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막강해진 청의 현재를 배척하기보다는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니, 무분별하게 청의 기세를 무력으로 제지하기 보다는 그들의 선진문물을 배우려는 자세가 우선이라는 것이다. 허생은 그 방법론을 제시하기에 있어 선진문물을 보다 신속하게 습득하는 길은 명석한 집권층의 자손을 직접 보내어 알아오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는 것이다. 또한 백성들에게 그곳은 상업형태를 직접 경험하여 淸의 허실을 관찰하여 경제에 유익됨이 실로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낙후된 우리 국가경제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이며 그렇지 못함을 수치스러워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지배층의 협소한 사견으로 기인된 북벌정책은 부질없는 것이며, 그들의 외침에 반하여 國恥를 해결하는 방법은 북벌이 아닌 북학, 즉 청의 선진문물을 받아들여 이용후생·부국강병·민생안정의 토대를 갖추어야함을 강변하고 있다. 자신이 제시한 대안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이완에게 거세게 몰아치고도 분을

56) 朴箕錫, 『朴趾源 文學硏究』, 三知院, 1984, p.137.

삭이지 못한 허생은 성토한다.

> 소위 '사대부' 란게 도대체 어떤 놈들이냐. 彝·貊의 땅에 태어나서 제멋대로 '사대부' 라고 뽐내니, 어찌 앙큼하지 않은가 ·····(중략)····· 내가 평생 처음으로 세 가지 계책을 가르쳤지만 너는 그 가운데 하나도 실천하지 못하면서 자칭 '신임 받는 신하' 라고 하니, '신임 받는 신하' 가 겨우 이렇단 말이냐. 이런 놈은 베어 버려야겠다.[57]

자신의 제안에 실천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에 분노하며, 지배층의 허식과 모순에 대해 비난 일색이었다. 지배계층의 썩은 의식구조를 통째로 들어내지 않고서는 결코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질타하고 있다. 결국 이 근원은 지배층의 무능과 위선에서 비롯된 것이라 비판하고 있다

그는 「허생전」을 통해 상공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외국과의 무역을 요구했고, 바람직한 이상사회를 구현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관심을 가져온 것이 북벌에 대한 인식이었다. 이미 수차례의 전쟁의 참혹함에 경제는 奈落으로 떨어져 헤어날 줄 모르고, 백성들은 처참한 犧牲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대의명분이란 명목 하에 청을 쳐야 한다고 부산을 떠는 지배층을 그대로 지켜볼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에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자 하였다.

궁극적으로 연암의 현실비판은 궁극적으로 사대부의 허위와 무능에 집중된다. 경제제도의 침체성도 북벌망상도 다 그들의 무능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3) 「호질」의 북곽선생

「虎叱」은 「허생전」과 더불어 연암의 대표적인 소설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 소설 역시 여타 다른 소설과 같이 현실비판이 主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 소설에 세인들에게 비판의 대상으로 각인시키고 있는 것은 지배층, 특히 유학자들의

57) 『연암집』 권8 「허생전」. 所謂士大夫 是何等也 産於彝貊之地 自稱曰士大夫 豈非騃乎 ····(中略)·····吾始三言 汝無一可 得而能者 自謂信臣 信臣固如是乎 是可斬也.

거짓된 삶을 꼬집어 비난 일색이라는 점이다. 이에 그들의 면면을 조명하기에 있어 연암소설의 특징인 풍자의 眞髓를 보여주고 있다. 연암이 이 소설을 집필하게 된 목적은 당시의 위선과 가식으로 점철된 생활을 하는 유학자들에 대한 질타이며, 더 나아가 사회에 나타난 부정적인 인간의 본성에 대한 자각과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倀鬼들이 권하는 것마다 거부하는 범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니 바로 속세에서 지덕을 겸비하여 뭇 백성의 존경을 받고 있던 대상을 권한다.

> 저 숲속에 어떤 고기가 있는데, 인자한 염통과 의로운 쓸개를 지녔습니다. 충성스러운 마음을 간직하고 순결한 지조를 품었으며, 머리에는 樂을 이고 발에는 禮를 신었습니다. · ····(중략)····· 一陰一陽을 道라고 하는데, 그 儒가 이를 꿰뚫었습니다. 五行이 서로 낳고 六氣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데 그 유가 이끌어줍니다.58)

창귀인 본인마저 감탄을 금치 못할 대상에 범 역시 흡족할 것을 잔뜩 기대하고 있음이다. 연암이 바라는 진정한 양반의 像이니, 충의와 지조가 충천하고, 풍류를 알고 예의범절이 몸에 배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오한 陰陽五行의 道까지 터득하여 무지한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연암이 그들의 외적모습을 추켜세우면서 이면에 가려진 추악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즉 '인자한 마음과 의로 다져진 충성스러움, 순결한 지조를 품은 체하고, 불의를 참지 못하는 순결한 지조를 품은 척하고, 유유자적한 여유와 禮樂을 숭상하는 척하고, 학문과 재주가 능통하여 만물의 이치를 꿰뚫고 있는 척하니, 그 결과 얻어진 것은 등살이 오붓하고 기름질이 잘 된 몸뚱이 하나라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지배계층의 숭고한 모습을 역설적으로 그들의 허례허식, 위선과 가식, 공리공론만을 일삼는 행태를 싸잡아 비난과 조롱을 하고 있다. 다재다능한 능력을 발산하고 있는 儒者에게 구미가 당기는 듯하나, 이내 한 끼 식사로서

---

58) 『연암집』 권8 「호질」. 有肉在林 仁肝義膽 抱忠懷潔 戴樂履禮 ·····(中略)····· 一陰一陽之謂道 儒貫之 五行相生 六氣相宜 儒導之.

탐탁해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유자를 선택하고 범의 속내를 드러내며 유자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범은 자신의 먹을거리로 유자를 확정하고 구역질이 날 만큼 극악무도한 그를 찾아 여정에 오르니, 碩德之儒라 칭송받는 북곽선생과의 만남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지상에서 북곽선생은 그의 명성이 자자하여 제후마저 사모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자신의 명성과 걸맞지 않게 음탕한 짓에 여념이 없으니 여우라 오인 받아 줄행랑을 치다가 오물구덩이에 빠지는 수모까지 겪게 된다.

> 범이 이맛살을 찌푸리며 구역질하다가, 코를 막고 머리를 왼쪽으로 돌리며 '에이쿠, 그 선비가 구리구나.' 하고 혀를 찼다. 북곽선생이 머리를 조아리며 앞으로 엉금엉금 기어 나와, 세 번 절하고 꿇어앉았다. 고개를 쳐들고 이렇게 여쭈었다. ·····(중략)····· 그 거룩한 이름이 神龍과 짝이 되어, 한분은 바람을 일으키고 한분은 구름을 일으키시니, 저처럼 下土의 천한 신하는 감히 그 바람 아래 서옵니다.[59]

투철한 유교적 사고방식을 지녔던 연암에게서 인간적 본능보다는 인간의 이성 비중을 둔 인물이었다. 우선 허울 좋은 양반이란 신분에 가려진 양반의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근성을 밑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있다. 지배계층에게서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비굴과 아첨의 극치를 보이고 있으니, 이들이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몸소 보여주고 있다. 위기에 직면하면 신분의 고하는 부질없는 것이니, 강자에 두려움과 비굴함을 갖는 한낱 인간에 불가하다는 것이다. 또한 명분과 체면에 자신의 죽음을 초개같이 버릴 것만 같았던 그들도 뭇 백성보다 더 비열해질 수도 비겁해질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곽선생이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자신의 위선을 감추기 위해 필사적으로 줄행랑을 치는 모습이며, 오물구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목숨을 구걸하는 모

---

59) 『연암집』 권8 「호질」. 虎顰蹙嘔哇 掩鼻左首而噫曰 儒 句 臭矣 北郭先生頓首匍匐而前 三拜以跪 仰首而言曰 ·····(中略)····· 名並神龍 一風一雲 下土賤臣 敢在下風.

습을 생생한 필치로 그려내고 있다. 기존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지배층의 비판에서 벗어나 자신이 할 수 있는 文의 힘을 빌려 그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겉으로는 四綱이며 五倫을 운운하며 유교적 윤리와 당대의 형법이 합리적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생활과는 별개임을 밝히며, 유교적인 근본정신이 훼손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연암이 간과하지 못하는 것은 순수성을 왜곡하여 지배층들의 편의에 따라 악용하고 있는 행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 범은 나무와 풀을 씹지도 않고, 벌레나 물고기를 먹지 않으며, 강술처럼 좋지 못한 것을 즐기지 않고, 젓이나 알처럼 자질구레한 것들은 차마 먹지 못한다. 산에 들어가면 노루와 사슴을 사냥하고 들판에 나가면 말이 소를 사냥하되,·····(중략)····· 또 그 善惡으로써 따지더라도 뻔뻔스럽게 벌과 개미의 집을 노략질을 하고 긁어 가는 놈이야말로 천지의 巨盜가 아니겠으며, 함부로 메뚜기와 누에의 살림을 빼앗고 훔쳐 가는 놈이야말로 仁義의 대적이 아니겠느냐[60]

범은 본시 사사로운 이익을 탐하지 않으며 지금껏 상대방의 원성을 산 적이 없을 정도로 공명정대하건만, 인간들은 자신의 사리사욕에 눈멀어 자신의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되돌아 볼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자신의 利權과 영역을 사수하기 위한 그들의 집요함은 풀 한 포기, 갈기 한줄 남기지 않을 정도로 지독하여, 그로 인해 희생이 적지 않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물질에 대한 집착은 그 도를 넘어서고 있으니,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갈취하고, 목숨을 위태롭게 하고, 심지어 형을 삼아 부르니 이 어찌 온전한 세상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자세는 충의를, 예의를, 도리를 논할 자격이 있을 수 없다. 더구나 자신의 밥그릇싸움에 만족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마저 서슴지 않고 있는 일련의 작태를 질타하고 있다.

---

60) 上揭書, 虎不食草木 不食虫魚 不嗜麴蘖悖亂之物 入山獵麋鹿 在野畋馬牛 ·····(中略)····· 自其善惡而辨之 則公行剽刦於蠭蟻之室者 獨不爲天地之巨盜乎肆然攘竊於蝗蚕之資者 獨不爲仁 義之大賊乎.

연암이 당시 수적 팽창한 지배층의 생계기반을 확보하지 못하여 다양한 試策들을 시행해 보았지만 실패의 연속이었으며, 그 폐단은 고스란히 백성들에게 돌아갔다. 결국 국가재정의 궁핍과 지배계층의 생활기반을 책임지는 것은 백성들이었으니 그들의 가혹함이란 실로 심각했다. 연암이 지향하는 이성적인 사회는 자신의 타고난 본분에 순종하고, 세상의 불의에 의연하게 대처하는, 그리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天命을 다하면 결코 세속의 이기에 현혹되지 않는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 북곽선생이 자리를 물러나 한참 엎드렸다가 일어나 엉거주춤하더니, 두 번 절하고 머리를 거듭 조아리며 말하였다. ·····(중략)····· 마침 아침에 밭을 갈러 온 농부가 '선생님, 무슨 일로 일찍이 이 벌판에서 절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북곽선생이 '내 이전에 들으니 '하늘이 비록 높다 하되 머리를 어찌 안 굽히며 땅이 비록 두텁다 한들 얕디디지 않을 쏘냐'.[61]

범이 사라진 사실도 모른 채 두려움을 조아리길 한참, 어느새 동녘이 밝아오니 유자의 행색을 기이하게 여겨 물으니 답이 가관이다. 방금 전까지 목숨을 구걸했던 유자였건만 이전 거만한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다. 즉 천지만물을 이치를 깨달아 하늘을 공경하고 땅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서 연암은 독자에게 유자가 개과천선할 수도 있으리라는 실날 같은 희망마저 주지 않았으니 지배층에 대한 不信과 혐오가 가득했다. 시종일관 지배층의 면면을 注視하면서 자신의 포부를 마음껏 펼쳐 볼 수 없는 막막한 현실에 가슴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실권 층에 대한 불평불만은 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연암의 한계이다. 이미 만성화되어버린 지배계층의 의식구조와 생활상을 한 지식인이 바꾼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것이었다.

「호질」 속 북곽선생의 생활 상를 통해 조선 조 봉건사회의 현실과 그 중심축을

---

61) 上揭書, 北郭先生離席俯伏 逡巡再拜 頓首頓首曰 ·····(中略)····· 農夫有朝菑者 問先生何早敬於野 北郭先生曰吾聞之 謂天蓋高 不敢不局 謂地蓋厚 不敢不蹐.

이루고 있는 지배층들의 타락과 부패로 얼룩진 폭로일변도로 구성되어졌다. 비판대상으로 설정된 북곽선생은 학덕과 명성을 겸비하고도 그에 걸맞지 않은 저속하고 비열한 행동으로 뭇매를 당하는 존재이다. 그를 통해 양반의 虛와 實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더 나아가 세상을 향해 인간이 부지불식간 행해지는 잔악무도까지도 함께 보여주고자 한다.

예컨대 연암은 「虎叱」을 통해 명분론과 형식주의에 빠져 허례허식과 공리공론에 몰입한 무리, 무모함의 극치로 나타난 북벌론에 집착하는 무리, 강자 앞에서는 아첨과 아부로 일관하고 약자 앞에서는 거만과 허세로 맞서는 무리, 힘없는 백성 앞에 알량한 신분의 우월성을 내세우는 무리, 무위도식과 경제적 무능의 표본으로 상징되는 무리, 거짓과 악행에 젖혀 있는 무리 등 지배계층의 비이성적이며 비윤리적인 모습을 그려내기엔 紙面이 너무도 빈약한 현실을 담고자 하였다. 이에 그의 지면이 채워지는 만큼 고통 받는 백성 역시 비례하여 커지는 현실 또한 간과하지 않고 있다.

### 4) 「예덕선생전」의 선귤자와 자목

「예덕선생전」은 엄행수의 삶을 통해 자신이 속한 집단의 모순과 허영을 들춰내고, 피지배계층에게 비춰지고 있는 모습들을 반성하고 개선하고자 하였으니, 당시 봉건사회의 엄격한 지배체제에서는 파격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바라보는 계층 간의 시각차 역시 컸으니 세인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던 선귤자와 그를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자목으로 대변되는 인물이다. 자목은 엄행수를 비천하기 짝이 없는 인물로 인식하지만, 선귤자는 엄행수에게 '선생'이란 칭호까지 붙여가며 극찬하므로 불만을 품고 반문한다.

> 그 전에 선생님이 제게 말씀하시기를 벗은 동거생활을 하지 않는 아내요·····(중략)·····선생님이 그의 인격을 높이여 스승이라고 일컬으면서 장차 교분을 맺어서 벗이 되려고 하시니 저까지 부끄러워 견디지 못하겠습니다.[62]

자신이 받들고 있는 스승이 천하기 짝이 없는 엄행수를 두고 극존칭에 분개하고 반발하는 자목의 반응은 당시 지배계층의 당연한 반응이다. 하늘 아래 신분제도가 엄연히 존재하고 그들의 정형화된 틀 안에서 안주하던 그들에게는 결코 인정할 수 없는 언사였다. 자목은 당시의 지배계층의 보여주는 전형적인 인물로 그들은 자신의 동류계층만의 '交' 만이 진정성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것이다. 그런 자목의 일반화된 반응에 선귤자의 강한 개선의지를 보인다.

> '진정한 벗의 사귐에 대해 市井雜輩의 사귐은 이익으로써 하고, 얼굴의 사귐은 아첨으로 하는 법이거든. 만일 깊숙하게 사귀자면 체면 같은 것을 볼 것이 없고 진실하게 사귀자면 특별히 죽자사자 할 것이 없네. 오직 마음으로 멋을 사귀며 인격으로 벗을 찾아야만 도덕과 의리의 벗이 되네'[63] 라고 한다.

시정의 교우는 이익을 위해하고 面交는 아첨을 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교우는 표면상으로 좋은 듯 보이나 사이가 좋아도 자주 이익에 얽매이다 보면 나빠지고, 설령 疏遠하더라도 잦은 아첨으로 다가서면 어느새 가까워지니 이런 사귐은 결속력이 약하며 아첨 역시 임시방편에 불과할 따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작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사귐이란 이런 것이 아니다. 진정한 교우의 사귐은 신실한 마음과 덕으로 교유하면 그들에게 간극이 있을 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이런 사귐이 '도의의 사귐' 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런 진실한 만남은 신분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생각이 연암에게 존재한다. 이는 양반층의 도의지교가 무너지는 세태의 심각성을 발견하고, 매서운 비판은 당시로서 양반층 보다는 서민층에서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

62) 『연암집』 권8 「예덕선생전」, 昔者 吾聞友於夫子曰 不室而妻·····(중략)·····夫子亟稱其德曰先生 若將納交而請友焉 弟子甚羞之 夫子亟稱其德曰先生 若將納交而請友焉 .弟子甚羞之.

63) 上揭書, 夫市交以利 面交以諂 故雖有至懽 三求則無不踈 雖有宿怨 三與則無不親 故以利則難繼 以諂則不久 夫大交不面 盛友不親 但交之以心 而友之以德 是爲道義之交.

한편, 연암의 관찰자로서의 창작된 선귤자는 계속해서 엄행수의 사람됨과 생활상을 주시하게 된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신의 맡은 바 책임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는 엄행수는 양반인 작가의 눈에 각인되기에 충분했다. 양반의 시각에 존경과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이들, 자신의 타고난 신분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비단 엄행수 한 개인만은 아닐 것이다. 아마도 당시 대부분의 서민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으며, 이 또한 자신의 일에 안분자족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전형적인 일반 서민의 생활이었다. 그런 현실을 작가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은 어떠한가에 대한 뼈저린 자아반성이 요구되어졌고, 자신의 시대적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양반들을 비판했다.

작가는 서민의 실생활을 통해 양반의 삶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도 극복할 수 없었던 자신의 한계가 드러나 있다. 작품 속의 서민들의 역할이, 독자적 존재라기보다는 양반들의 해이해진 도덕적 각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장치 성격이 짙다. 서민들이 피폐된 자신의 삶을 과감히 떨치고 세상 밖으로 나와 사회를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주체적인 역할로 그려지기 보다는 봉건질서의 결속을 다지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본문에서 연암의 유학자적 입장의 신분적 한계를 적나라케 드러내며, 혹자가 말하는 봉건적인 신분질서타파라는 접근방식에 큰 語弊가 있음을 보여준다.

> '부자와 귀인의 처지에 있어서는 부자와 귀인으로 지내고 가난하고 미천한 처지에 있어서는 간난하고 미천한 대로 지낸다고 했네. 대체 처지란 것은 이미 정해져버린 것이야. ·····(중략)·····'운명' 이란 것도 분수를 말한다네. 하늘이 만물을 낳을 실 때에 제각기 정해진 분수가 있었으니, 운명은 본래 타고난 것인데 그 누구를 원망하랴.64)

인간의 대한 숙명론적 운명론에 못을 박았다. 사회변화의 주체로서 발돋움하는

64) 上揭書, 素富貴行乎富貴 素貧賤行乎貧賤 夫素也者定也 ·····(중략)·····命也者分也 夫天生萬民 各有定分 命之素矣 何怨之有.

조선후기 시대적 상황을 감안할 때, 이런 작가의 인식은 이런 발상은 그의 유교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음이다. 즉 인간은 태생적으로 타고난 본분이 있으며, 이 '본분' 을 지키지 않음에서 오는 시대가 혼란하다는 입장이다. 즉 당시 지배층과 농부들에 의해 농토가 정당하지 못하게 겸병되는 경우가 속출되어, 여기서 밀려난 농민이 농사에서 이탈되고 농토가 황폐됨으로 말미암아 초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혹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미연에 막아야 했으니, 그러자면 기본적으로 그들에게 경작할 최소한의 농지가 있어야 하고 불만을 잠재워야만 하다.

그래서 양반은 양반의 본분을 지켜 학문에 매진하고, 신의에 진정성을 담아 관계를 개선하기를 바라고, 서민은 서민대로 자신이 해오던 대로 국가의 경제를 책임을 지는 원동력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모두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양반은 사리사욕에 급급해 있고, 서민들은 자신의 선천적 본분을 지키지 않고 사회에 불평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천하가 어지러워지고 서민은 민란과 봉기를 일삼고 있으니, 이런 경거망동한 행동이 있어서는 안 됨을 강조하는 듯하다. 그런 관점에서 엄행수는 자기의 미천한 본분에 맞게 행동하고 있기에 그를 존경한다고 표현하고 있음이 짙다.

앞서 언급한 엄행수와 대립을 이룬 지배계층의 전형을 보여주는 자목은 한 치의 타협도 용납되지 않은 원리원칙을 고수하는 인물이다. 시대의·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울타리에 갇혀 있는 인물로 조선후기 대부분의 양반들의 성향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작가를 대변하는 선귤자는 비록 유교적 신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지만, 사회교화적 목적성이 강한 인물로서 관찰자적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선귤자의 눈에 비친 도시시민 엄행수의 성실한 삶을 통하여, 양반의 위선적이고 타락한 모습을 조명하고 비판하고 있다. 내면에 내세운 도의지교를 강조하며 양반층에 대한 시대적 역할과 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사회적인 약자로만 치부했던 서민층에 대한 새로운 시각은 그동안 인식하지 못한 단면이기도 하다.

# Ⅲ. 연암의 현실 사유관

조선 왕조가 개국된 이후 불교에서 유교로 사상적 지도 이념이 전환되고 신분제의 변화 등을 위시하여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사회 변동을 겪게 되면서, 새 왕조 건국 사업의 정신적 기틀을 마련하기도 하였고 새로운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하면서 이상 사회를 지향하기도 하였으며 지배계층의 정신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기 시작하였다.[65]

조선 전기 경제적 풍요 속에 문학 전성기를 누리면서 성리학은 한 나라의 정신적 이념으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壬亂을 겪은 후 의식 있는 지배계층 사이에 현실적으로 무용지물에 가까운 이념적 성리학에 회의를 가져오게 되었고 자성의 바람과 자신들이 추구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어긋나고 있음을 직시한다. 전통적·관념적으로 지켜온 가치관은 급변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면서 위기를 가져왔고 정확한 현실인식의 不在는 새로운 변화를 촉구하게 되었다.

위기의식 속에서 전통적 가치관을 고수하면서 이념적 질서와 함께 기존체제를 더욱 엄격하게 지탱해 나가고자 하는 대다수 지배계층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일부 의식 있는 지배계층에 의해 조선 후기 사회의 어지러운 현실을 바로잡고 그 개혁의 중심으로 나서기 시작했다.[66] 이념과 현실 사이에서 지배계층의 갈등이 깊어지고 기존의 성리학의 역할이 퇴색되면서 등장한 것이 경세치용·이용후생·실사구시를 주창한 실학이다. 조선 후기 실학사상은 기본체제의 붕괴와 경제적 몰락되는 가운데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시기의 시대적·사상적으로 혼란 속에서 그 사회적 여러 모순을 극복해 나가라는 사상적 조류가 실학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때를 같이 하여 기본 질서마저 뒤흔들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느낄 정도로 문제시되기에 이르렀다. 당시 사회 제반의 모순을 정확히

65) 정대림, 『한국고전비평사』, 태학사, 2001, p.119.
66) 정대림, 앞의 책, p.120.

인식하고 그 바탕에서 당시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나 그 속에 내재해 있는 모든 갈등을 해소하는 주력하였다.[67] 기본질서가 무너지고 漫然化된 사회문제를 적극적인 대처로 조기에 바로잡고 개혁을 하는데 있어 실학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였다.

조선후기 대표적인 실학자로서의 연암 역시 자신이 처했던 현실극복에 적극적인 대처와 관심을 기우렸던 인물이었으며 특히 자신의 소설의 통하여 사회전반의 모순과 갈등을 조명하였다. 자신이 속한 지배계층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도덕적 각성을 촉구함에 있어서 자신의 그늘 아래 가려진 피지배계층 삶을 통해 자신들의 안일할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연암은 자신의 소설 속에 조선시대의 특수한 시대상황에 살아가는 인간집단유형을 담아내고 있다. 특히 이제껏 주목받지 못했던 피지배계층의 삶을 집중조명하면서 아울러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했던 지배계층의 붕괴되는 모습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그 진정성에 가치를 더한다.

연암이 살았던 18세기 후반은 그동안 지탱해오던 기존체제가 급격히 무너지던 시기였으니, 경제적 몰락·사회적 혼란은 그 폐혜를 한층 가중시키고도 남았다. 붕괴 직전의 재정 상태는 기존의 지배계층의 무능과 안일함으로 끝을 알 수가 없었으며, 그로 인해 파생되는 민생 전반의 문제들은 피지배계층의 삶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었다.

사실 연암의 신분은 자신이 속한 시대적 현실만큼이나 안정적이지 못했으니, 그런 중간자적 입장에 서 있는 연암의 고심과 갈등은 커가고 있었다. 이에 자신이 접하고 있는 현실을 직접 맞설 수 없는 것에 굴하지 않고, 한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으로서 책임을 가지게 되었다. 우선 연암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거론함에 있어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소위 양반이라 지칭되는 지배계층의 의식구조 변화라 여겼다. 지배층은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기존의 견고한 신분제도의 틀 안에서 누려왔던 특혜가 어디에서 온 것이며, 그들이 향유하고 있는 일련의 것들을

67) 정대림, 앞의 책, p147.

채우기 위해 한편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땀을 감수하고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이분법적 지배구조에서 오는 모순을 지배계층에 속한 연암은 직시하게 되고, 자신이 누린 혜택에 대해서 이에 상응하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배계층에게 독려하고자 자신의 소설을 통해 역설하고 있다. 연암의 소설은 피·지배계층의 주인공들을 각각 내세워 그들의 삶을 깊숙이 관찰하면서 당시의 현실적 모순과 부조리를 들춰내어 실생활에 야기된 문제를 해결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연암은 많은 서적과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시대를 앞서가는 개혁적인 지도자임에 틀림없다. 또한 그의 현실인식에 대한 개혁성향은 그의 소설 쉽게 접할 수 있으니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지배계층일지라도 본받고 배울 점이 있다면 무지랭이 천민에게서라도 배워서 익혀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능동적인 의식 저변에 깔려 연암조차 극복하지 못한 신분체제의 구분이 존재하고 있으니, 그 하나가 「예덕선생전」의 엄행수, 「광문자전」의 광문, 「양반전」의 富人 등의 인물로 피지배계층이며, 다른 하나는 「양반전」의 양반, 「허생전」의 허생, 「호질」의 북곽선생, 「예덕선생전」의 선귤자와 자목 등과 같은 인물로 지배계층으로 형상화시킨 것이다. 연암은 피·지배계층의 주인공들 삶을 통해 자신이 속한 위치에서 주어진 본분과 역할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고 아울러 지배계층은 피지배계층 스스로가 자각하여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의식이 짙다.

연암의 초기 소설인 「예덕선생전」의 엄행수는 조선시대 신분체제에서 가장 천한 신분인 천민이면서 누구나 꺼려하는 일을 천직으로 알고 자신의 삶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물이다. 뭇 사람들이 생각건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일지언정 연암의 눈에는 엄행수의 삶이야말로 진정한 노동의 가치를 알고 있는 인물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달리 당시의 지배계층이 그동안 누리던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불편함을 호소하며, 자신의 무위도식하는 삶을 영위하고자 급급해 하고 있었으며, 이를 지켜보는 연암은 성실한 천민의 삶을 제시하고 있다. 이

로 인해 자신의 의무를 져버린 채 자신의 일신의 안위에 탁상공론만을 일삼는 당시의 지배계층에게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고 각성하도록 촉구하고자 했다.

연암은 「광문자전」의 광문이란 인물 역시 앞의 엄행수처럼 천민출신을 내세워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지배계층들에게 광문의 인간됨을 보여주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쉽게 자행되고 있는 삶의 모습들-권력을 탐하고 남을 시기 질투하며 부정한 일에 망설임이 없으며 아울러 반성의 기미조차 비치지 않은 몰지각함에 격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신분에서 오는 현격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당시 지배계층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모습을 연암은 한 천민의 인간성을 통해 자신들이 나가야할 바람직한 상을 제시하였다. 자신이 이미 지니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을 것을 탐하기에 여념 없는 그들과 최하위층의 삶일지언정 만족하고 여유를 가지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다. 연암은 지극히 단순하고 평범한 진리이지만 몸소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니,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본분에 충실하고 책임과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과도기적 시기에 등장한 신흥계층 「양반전」의 富人은 기존 신분제도를 흔들 우려가 다분했으니, 비록 그 구분자체가 소멸된 것은 아닐지라도 양반사회의 신분질서에 변화를 가져오기에 충분했다. 이를 간과하지 않은 연암은 그들의 동향에 주시하고 있었다. 아울러 경제력을 확보한 이들이 양반의 신분을 갈구하는 근본원인을 들여다보고, 그 내면에서 발하는 인간 본연의 마음을 읽게 한다. 지배계층에 집중되어 있는 양질의 혜택을 일말의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누리는 그들에 대한 피지배계층의 항변의 단면이며, 인간본능에서 기인된 것을 확인시킨다.

이에 연암은 자신이 속한 지배계층들에게 피지배계층의 삶의 노고와 불합리성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그들보다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주어진 권리만큼 양반으로서 지켜야할 본분을 다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양반전」의 양반은 조선시대 무기력한 지배계층의 전형을 보여주는 인물로 묘사하여 그들의 삶을 비판하고 있다. 변화의 바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

이 자신들의 눈 아래보다 집단에게서 마저 무시와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양반들의 처절한 모습을 접하게 되면서 연암이 고수해왔던 진정한 선비로서의 위치마저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다. 실제로 연암은 젊은 시절 서민들과의 빈번한 교류를 가지면서 그들의 생활을 직접 접하면서 협소한 현실인식 속에 갇혀 있는 무수한 선비보다 성실한 삶을 영위해 가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반대로 자신이 속한 집단은 하루의 생계마저 위태롭게 연명해 나가기 일쑤거나 한번 쥔 권력에 파묻혀 허우적거리는 모습에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모범을 보여야할 자신들이 나라 경제를 좀먹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동료의식에 휩쓸려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관료들,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눈앞의 이득에 눈 먼 양반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아울러 천하게 여겨왔던 금전의 위력을 실감하며 위기의식을 가지고 나라 경제의 확고히 하는데 지배계층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크게 발휘해야 할 때임을 강조하고 나서고 있다. 즉 지배계층이 바로 서지 못하면 한 나라의 위계질서는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으며 훗날을 기약할 수 없다고 역설하고 있다.

「양반전」의 양반이 연암 자신이 지양해야 할 지배계층의 전형을 보여주었다면 「허생전」의 허생은 연암이 혼돈의 시대에 바람직한 지배계층의 면모를 갖춘 인물로 그려내고 있다. 연암이 생존했던 당시는 정치적·사회적·사상적으로 극도의 혼란기였다. 이에 개혁적인 성향이 강했던 연암은 시대를 앞서가는 안목이 탁월하였으며 발 빠른 대처로 현실 극복에 앞장섰으니, 그런 자신의 현실인식을 허생이라는 능동적인 인간형으로 자신의 포부와 의지를 표출해내고 있다.

연암은 지엽적인 사고에 갇혀 방황하는 일부 몰지각한 인물들과 달리 세상이치에 밝아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지배계층이 요구되는 시대임을 인식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다양한 각도에서 시도하고 있다.

양반의 기본적인 소양은 불철주야 학문에 매진해야 하는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연암이 지향하고자 하는 학문탐구의 방향은 맹목적인 文이 아닌

근본이 되는 자질을 전제로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경제력을 갖추고 현실적인 안목과 대처가 선행되어지는 지도자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허생이 보여주고 있는 거시경제관념은 비좁은 조선이란 나라에 적용하기에 그 쓰임이 무색할 정도이다.

피폐해진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의 예를 제시하면서 의식 있는 지도자들의 자발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특히 현식 극복의 일환으로 상공업의 장려를 힘썼으며, 상공업의 발달을 위해 지배계층의 학문적·이론적 바탕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니, 이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할 이들이 지배계층이라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열린 사고로 세상에 접근한 연암과 달리 급변하는 주변국가의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고리타분한 명분론에 휩싸인 대부분의 지배계층의 한심한 작태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다. 虛榮의 결정체인 지배계층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호질」의 북곽선생이라 할 수 있는데, 양반의 실생활을 특히 유학자들의 거짓된 삶을 꼬집어 비난하고 있다. 만인의 존경과 흠모의 대상이었던 계층의 이면을 들춰내어 그 추악한 면모를 밝혀 바로잡고자 하였다. 연암이 바라보는 인간의 본성은 매한가지라는 전제하에 모범이 되어야할 집단의 위선적인 행동이 암암리에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고 이를 간과할 수 없다는 심정으로 자신의 치부를 과감히 드러내고 있다. 특히 자신의 일신에 득이 된다면 상대방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마저 서슴지 않는 일부 지도층을 향해 도덕적 각성을 촉구하고 나서고 있으니 당시의 행태가 그 도를 지나치고 있음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예컨대 북곽선생이란 인물의 실생활을 집중조명하여 조선조 사회현실 속에 중심을 이루고 있는 지배층들의 타락과 부패상을 만천하에 폭로하여 사회 전반에 만연된 부조리한 현실이 바로 잡히길 염원하고 있다.

「예덕선생전」에 등장하는 선귤자와 자목은 사뭇 다르게 인물유형으로 그려져 있다. 선귤자라는 인물은 연암이 시대적으로 가장 요구되어지는 지배계층의 부류로, 시대를 앞서가는 안목과 세상 이치에 밝으며, 자목은 당시 일반적이 지배계층

의 성향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전형적인 인물로 기존체제에 안주하여 고수하기에 여념이 없고 새로운 변화에 거부반응이 강한 지배계층의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의 영역을 침해하는 어떠한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는 고자세의 자목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설득과 이해를 구하고 있는 현실이 결코 허구적인 설정이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보수적인 지배계층을 대상으로, 또 엄연히 현실에 존재하는 신분제체하에서도 능동적이 사고로 개인을 재평가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선귤자의 모습에서 연암의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을 엿볼 수 있다.

연암은 자신이 실생활에 몸소 체험한 현실적인 한계를 자신의 소설을 통해 극복하고자 노력했으니, 특히 일방적으로 고통을 감내하는 피지배계층의 삶을 그려내어 지배계층들의 안일하고 그릇된 삶을 지탄하고 각성하는 계기를 마련고자 했다. 그 방법론을 제시하기에 있어서 연암이 몸소 피지배계층과 교류하고 경험하면서 체득한 것을 바탕으로 그들의 삶을 조명함으로써 그 현실적인 측면이 강하다.

특히 신분고하를 떠나 인간적은 본성에 따라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는 인간의 참 모습을 발견하고 그들의 현실적 애환을 공감하려했다. 아울러 그들의 소박한 삶을 통해 그러지 못한 양반에게 비판하고 경각심을 가지도록 격려하고 있다. 천민에서 농민으로 아우르는 서민 계층이 위선으로 가득 찬 양반들에 못할 何等의 이유가 없을 것이니, 오히려 도덕적으로 우월함이 사회적인 주체로 손색이 없다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 역사적·사회적 주체를 서민으로 보는 새로운 시각이 남다름이 있다 할 수 있다.

신분적 불리함에 굴하지 않고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삶을 영위해 가는 피지배계층을 삶과 달리 물질적 풍요로움에 묻혀 불평불만에 쉴새 없이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지배계층의 행태에 연암은 그저 수수방관할 수가 없었다. 이에 한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으로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적 병폐나 사회적 동향을 주시하면서, 참혹한 현실에 심적 위기의식과 사회적 사명의식을 강하게 가지게 되었다. 또한 시대적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일부 지배계층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아울러

심각성을 자신의 소설에 반영하여 잠재적인 민중의식을 고취시키고 더 나아가 시대를 바라보는 새로운 인식전환을 선도하고자 하였다.

# Ⅳ. 결 론

우선 본고에서는 기존의 논문에서 보던 연암소설에 대해 연상되어지는 일반적인 시각, 즉 풍자소설하면 연암소설이라는 공식에서 벗어나서, 학덕과 재능을 겸비한 연암이 하고 많은 서술기법을 중에 풍자와 골계 작법을 선택하여 작품을 기술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사회적 현실을 그의 작품을 통해 살펴보고자 했다.

주지하는 바, 연암이 활동하던 조선후기는 위선과 가식의 溫床이 되어버린 지배계층의 몰지각한 행태에 일침을 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였다. 그런 현실적인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던 연암은 그의 작품을 통해 한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으로서 주어진 책임과 의무에 임한다. 연암이 활동하던 당시는 그의 재능과 학문에 시기와 배척으로 일관하던 실권 층들이 불철주야 그를 주시하고 있던 때이다. 연암이 제 아무리 붕괴에 직면한 국가와 경제를 위해 양반으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이 있었지만, 그 역시 불안정한 삶을 근근이 살아가던 인간인지라 생존에 대한 위협에 감수해야만 했다. 그런 시대적 현실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부조리와 모순을 비판하고 그 근본원인의 장본인이 되어버린 지배계층에게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그들의 착취와 억압에 숨죽이며 살아가는 수많은 피지배층에게도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도덕성 각성을 촉구해야만 했다.

조선후기 연암의 소설에는 자본을 중심으로 한 경제발전에 따라 도시의 형성과 농촌의 변화, 양반층의 몰락과 中人·胥吏 등을 포함한 상인·수공업자·농민들 사이에서 신흥부농층 대두 등 많은 새로운 역사적 현상을 다루고 있다. 아울러 전통적 가치관이 크게 동요되면서 신분체제의 갈등이 중대한 문제로 제기되는 동시에, 그 해결을 위한 노력이 그 속에 진지하게 묘사되고 있다.[68] 연암이 그려낸 주인공들의 일상생활에 나타난 일련의 사고와 행동들은 당시의 부조리한 사회현실에 대한 비

68) 李佑成·林熒澤, 『李朝漢文短篇集(上)』, 一潮閣, 1973, p.3.

판과 해결책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부패한 사회가 된 근원이 바로 지배층에 있음을 강조하고 본연의 위정자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라고 있다. 당시 최하층 인간들의 성실한 삶의 모습을 관찰하고, 그들에게서 참다운 인간성을 발견함과 동시에 지배계층의 부정적이고 위선적인 삶의 모습을 역설적으로 비판했다.

「예덕선생전」은 사회교화적 성격이 강한 작품으로 도시시민 엄행수의 성실한 삶을 통하여, 양반의 위선적이고 타락한 모습을 조명하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이용후생학파로서의 실학자로서의 시각의 전환이 이때임을 보이는 서민의식, 糞壤에 관한 중요성 및 近郊農業의 관심 등이 반영되고 있다.

「광문자전」은 천한 신분인 광문의 신의 있는 행위와 자신의 분수를 알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명예를 탐하여 남을 헐뜯고 시기하며 부정한 일을 저지르고도 반성할 줄 모르는 당시 시정주변의 인간군상을 비판하고 있다.

「양반전」은 표면적인 신선 같았던 양반의 허실을 고발하고 그들의 무능력과 안일함을 풍자하여 양반들의 해이해진 도덕성을 회복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양반에 권위에 도전하는 이들에게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삼가고, 망각한 자신의 본분에 안분지족의 삶을 독려하는 이중성을 내포하고 있다.

「허생전」은 허생을 내세워 연암이 燕京을 다녀 온 후, 현실과 백성을 외면한 채 오로지 당리당략에 몰두하고 있는 지배층의 도덕적 각성을 요구하면서, 사회가 가야 할 바람직한 象을 제시하고 있다.

「호질」속 북곽선생의 모습을 통해 당시의 위선과 가식으로 점철된 생활을 하는 유학자들에 대한 질타이며, 더 나아가 사회에 나타난 부정적인 인간의 본성에 대한 자각과 반성을 촉구하는데 있다.

연암은 기존의 지식인들이 결코 할 수 없었던 시대적 대응 능력이나 사회를 바라보는 慧眼은 높이 평가되고도 남는다. 그런 그에게도 극복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으니 바로 자신의 신분적 한계였다. 연암의 청·장년시절 창작한 구전의 창작의 도가, 지배계층이 갖추지 못한 덕목으로 비판하고자 그들의 귀감이 될 만큼의 위치

에 서야 했기에 지나치게 봉건질서에 충실한 인간군상으로 대부분이 미화되고 각색되어 있다. 구속과 억압으로 짓눌린 당시의 피지배층의 이면을 찾기가 힘들며, 정작 국가·경제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인 그들의 고단했던 실생활을 제대로 조명하지 못하고 있다. 일련의 서민들의 실상이 배제된 채 기존질서를 묵묵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어, 연암 역시 양반이란 신분에서 서민을 바라보는 시각에 한계가 있다. 그의 모든 소설 전반에 걸쳐 드러나는 일관된 생각 즉, 본시 타고난 신분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자신의 처지에 불평불만을 품어 경거망동하는 愚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해진 분수를 지켜야 함이니, 그리 하지 않는 것이 세상의 禍를 불러일으키는 근본이라 했다. 이는 연암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소견으로, 지배층은 지배층대로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여 국가와 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도덕성 함양을 촉구하고, 피지배계층은 피지배층대로 변함없이 자신들이 해 왔던 것처럼 경제를 책임지는 원동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 줄 것을 강조했다.

예건대, 시대의 변화에 소신을 가지고 신분고하를 떠나, 자신의 본연의 위치에 충실해야 한다는 유교적 입장에서 바라 본 연암의 현실인식인 것이다.

연암은 현실을 직시하는 안목과 식견이 있었으며, 그런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을 개혁하고자 한 인물이다. 이에 반하여 자신이 속한 기존질서가 외부의 힘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을 관망하고만 있지 않았다. 유교적 봉건질서를 유지하면서 사회의 변화에 적합한 개혁이 수반되길 원했다. 그런 태생적·신분적 현실인식이 그의 소설에서 반영되어 있다. 실재로 현실에서 자신이 겪었던 정신적·신분적 한계가 그의 소설에서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즉 연암 이름 앞에 붙은 많은 극찬과 존경에 마지않는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또 다른 모습의 자화상이면서, 타고난 능력으로도 가릴 수 없었던 안타까운 현실이라 할 수 있다.

그의 소설은 문학적으로 역사적·사회적 현실과 그에 따른 신분분화의 대세에 따라 인식의 변화를 시도하였고, 인식의 변화가 신분의 귀천을 떠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자각으로 발전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는 시기적으로 신분제도의 동요에 대한 문제는 전근대사회와 근대화를 구분하고자 할 때 하나의 기준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신분제의 동요는 서민층의 성장과 지배계층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일어나는 것이므로 그 사회의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영향을 미쳤다. 예컨대 당대 현실사회의 모순과 유교적 이상 사회를 지향하기 위한 사회정화의 역설하였으며, 이용후생의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실용정신을 추구하고 근대사회를 지향하고자 했던 의지를 반영하고자 했다.

# 참 고 문 헌


1. 資料

朴趾源,『燕巖集』, <朴榮喆本> 景仁文化社, 1974.

國譯 熱河日記, 民族文化推進會, 古典國譯總書, 1968.

2. 單行本

姜萬吉,『朝鮮後期 商業資本의 發達』, 高麗大出版部, 1981.

國史編纂委員會,『韓國史論4, 朝鮮後期』, 民族文化社, 1981.

김명호,『朴趾源文化研究』,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2001.

金相洪,『朝鮮期漢文學의 照明』, 이회문화사, 2003.

金英東,『增補 朴趾源小說研究』, 太學社, 1988.

김지호,『박지원의 문학과 사상』, 한양대학교, 1994.

金相洪,『茶山丁若鏞文學研究』, 檀國大出版社, 1985.

金容燮,『朝鮮後期農業史研究, -農村經濟·社會變動-』, 一潮閣, 1970.

金台俊,『增補 朝鮮小說史』, 한길사, 1990.

———,『定本 朝鮮漢文學史』, 심산문화, 2003.

리가원·허경진,『燕巖朴趾源小說集』, 漢陽出版社, 1995.

李基白,『韓國史臣新論』, 一潮閣, 1990.

朴箕錫,『朴趾源文學研究』, 三知院, 1984.

———,『韓國漢文學史』, 晋成文化社, 1984.

社會科學院 文學研究所,『조선문학통사 I』, 以會文化社, 1996.

李東根,『朝鮮後期 <傳> 文學思想』, 太學社, 1991.

李丙疇,『韓國漢文學史』, 半島出版社, 1991.

李右成,『實學研究序說 <實學研究入門>』, 一潮閣, 1974.

李右成·林熒澤,『李朝漢文小說集(上)』, 一潮閣, 1973.

李岩著,『燕巖美學思想研究』, 國學資料院, 1995.

蘇在英,『古代小說通論』, 二友出版社, 1983.

정대림,『韓國古典批評史』, 태학사, 2001.

정석종,『星湖李瀷』, 創作과 批評史 14호, 1969.

鄭尙均,『韓國中近世敍事文學史』, 새문사, 1992.

趙東一,『韓國漢文思想史試論』, 知識産業社, 1978.

車溶柱,『燕巖研究』, 啓明大學校出版社, 1984.

———,『韓國漢文學史』, 景仁文化社, 1995.

黃浿江,『虎叱研究, -文學的 象徵體系와 社會的 脈絡-』, 韓國小說文學의 探索, 一潮閣, 1978.

3. 論文

姜美淑,「燕巖小說에 나타난 諷刺性 研究」, 忠南大 碩士學位論文, 1992.

金宣廷,「燕巖小說에 나타난 諷刺性 研究」, 韓南大 碩士學位論文, 2000.

金貞姬,「燕巖小說에 나타난 作家意識」, 漢陽大 碩士學位論文, 1986.

金龍範,「朝鮮後期 短篇小說에 나타난 社會現象과 愛情問題」, 淸州大 碩士學位論文, 1988.

朴箕錫,「燕巖朴趾源, -廣文者傳에 形成에 관한 考察-」, 李應百博士回甲紀念論文 普晋齊, 1983.

———,「燕巖의 初期 九傳에 대한 一考, -穢德先生傳 中心으로-」, 1967.

盧昌善,「燕巖小說研究」, 忠南大 碩士學位論文, 1996.

方貴煥,「燕巖小說에 나타난 戲曲性 研究」, 忠南大 碩士學位論文, 1992.

백운화, 「朝鮮後期 諷刺小說 硏究, -諷刺樣相을 中心으로-」, 世宗大 碩士學位論文, 1990.

송희정, 「燕巖의 漢文小說에 나타난 作家意識」, 서울여대 碩士學位論文, 1993.

申蘭秀, 「燕巖小說의 敍述技法 硏究」, 中央大 碩士學位論文, 1987.

申貞子, 「兩班傳 硏究, -思想性을 中心으로-」, 誠信女大 碩士學位論文, 1986.

梁秀正, 「朴趾源 小說과 蔡萬植 小說에 나타난 諷刺性 比較 考察」, 전남대 碩士學位論文, 1989.

劉閔相, 「燕巖小說 <許生>의 構造的 特質攷」, 淸州大 碩士學位論文, 1991.

柳永泰, 「許生傳의 葛藤樣相의 考察」, 嶺南大 碩士學位論文, 1986.

兪弘爛, 「燕巖小說硏究, -登場人物을 中心으로-」, 成均館大 碩士學位論文, 1990.

尹元植, 「朝鮮後期 漢文小說의 리얼리즘 硏究, -實學派를 中心으로-」, 檀國大 碩士學位論文, 1988.

李敬姬, 「許生傳 硏究」, 誠信女大 碩士學位論文, 1988.

李石來, 「許生傳硏究」, 韓國古典散文硏究, 同和文化社, 1981.

李相玉, 「許生傳, -裏面思想을 中心으로-」, 忠南大 碩士學位論文, 1989.

이정주, 「燕巖小說硏究」, 圓光大 碩士學位論文, 1986.

鄭南秀, 「燕巖小說硏究, -人間型의 探索-」, 嶺南大 碩士學位論文, 1983.

趙一熒, 「燕巖朴趾源小說硏究」, 朝鮮大 碩士學位論文, 2002.

趙鍾業, 「許生傳 硏究, -그 裏面 思想을 中心으로-」, 忠南大 碩士學位論文, 1989.

黃浿江, 「虎叱硏究, -文學的 象徵體系와 社會的 脈絡-」, 韓國小說文學의 探索, 一潮閣, 1978.

車溶柱, 「許生傳의 矛盾과 限界性에 대한 考察」, 『韓國學論集 9集』, 1992.

黃在淳, 「燕巖의 <穢德先生傳> 硏究」, 仁荷大 碩士學位論文, 1987.